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비영리. 귀하는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변경금지. 귀하는 이 저작물을 개작, 변형 또는 가공할 수 없습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석사학위논문

부모-자녀 간 의사소통유형과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의 관계

The logo of Jeju National University is a large, stylized 'J' shape. The left side of the 'J' is composed of three curved, flame-like shapes in blue, green, and grey. The right side is a solid purple vertical bar. In the center of the 'J', there is a small icon of an open book above the text 'JEJU 1952'. The entire logo is surrounded by a faint circular watermark containing the text 'JEJU NATIONAL UNIVERSITY 1952' and '제주대학교' in Korean.

제주대학교 교육대학원

상담심리전공

강 명 심

2009년 8월

부모-자녀 간 의사소통유형과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의 관계

지도교수 박 정 환

강 명 심

이 논문을 교육학 석사학위 논문으로 제출함.

2009년 8월

강명심의 교육학 석사학위 논문을 인준함.

심사위원장 _____ (인)

위 원 _____ (인)

위 원 _____ (인)

제주대학교 교육대학원 상담심리전공

2009년 8월

부모-자녀 간 의사소통유형과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의 관계

강 명 심

제주대학교 교육대학원 상담심리전공

지도교수 박 정 환

이 연구*의 목적은 중학생이 지각한 부모-자녀 간 의사소통유형과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의 관계를 밝히는 데 있다. 이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연구문제를 설정하였다.

첫째, 중학생이 지각한 부모-자녀 간 의사소통유형은 배경변인에 따라 어떠한 차이가 있는가?

둘째,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은 배경변인에 따라 어떠한 차이가 있는가?

셋째, 중학생이 지각한 부모-자녀 간 의사소통유형과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은 어떠한 상관관계가 있는가?

넷째,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에 대한 의사소통유형의 영향력은 어떠한가?

위의 연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제주도내 중학교 3학년 학생 584명을 대상으로 부모-자녀 간 의사소통유형과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에 대해 질문지 조사를 실시하였다.

측정도구로는 부모-자녀 간 의사소통은 Barnes와 Olson(1985)이 제작한 부모-자녀 간 의사소통유형 척도 중 청소년 자녀용 질문지를 김윤희(1990)가 번안한 것을 사용하였다.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은 Taylor와 Betz(1983)가 개발한

* 이 논문은 2009년 8월 제주대학교 교육대학원 위원회에 제출된 교육학 석사학위 논문임.

Career Decision-Making Self-Efficacy Scale 단축형(CDMSES-SF)을 이은경(2000)이 타당화한 것을 사용하였다.

수집된 자료는 SPSS WIN 12.0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배경변인에 따른 부모-자녀 간 의사소통유형과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의 차이를 알아보기 위해 변량분석을 실시하였고, 부모-자녀 간 의사소통유형과 진로결정 자기효능감과의 관계를 알아보기 위해 상관분석을 실시하였으며,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에 대한 의사소통 유형의 영향력을 알아보기 위해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이와 같은 과정을 통하여 얻어진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배경 변인에 따른 부모-자녀 간 의사소통유형에서 여학생은 어머니와 개방적인 의사소통을 더 많이 하고, 남학생은 어머니와 문제형 의사소통을 더 많이 하며, 자녀의 성적이 높을수록, 경제수준이 높을수록 부모-자녀 간 개방형 의사소통을 더 활발히 한다.

둘째, 배경 변인에 따른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은 성별에 따른 차이는 없으나, 자녀의 학교성적이 높을수록, 부모의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가정의 경제수준이 높을수록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이 높다.

셋째, 중학생 자녀는 부모와 개방형 의사소통을 할수록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이 높고, 문제형 의사소통을 할수록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이 낮다.

넷째, 부모-자녀 간 의사소통유형 중 부모-개방형 의사소통유형이 진로결정 자기효능감 전체를 설명하는 양은 17.2%이고,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의 하위영역을 설명하는 양은 목표선택, 직업정보, 미래계획, 문제해결 순으로 나타났다.

이상을 종합하면 부모와 개방형 의사소통을 한다고 지각하는 중학생은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이 높고, 문제형 의사소통을 한다고 지각하는 학생은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이 낮게 나타났다. 특히, 부모의 개방형 의사소통이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을 설명하는 양은 17.2%로 부모-자녀 간 개방형 의사소통유형이 자녀의 진로결정 자기효능감 발달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임을 알 수 있다.

목 차

I. 서론	1
1.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1
2. 연구문제 및 가설	3
II. 이론적 배경	4
1. 의사소통의 개념 및 유형	4
2. 진로결정 자기효능감	7
3. 선행연구 고찰	11
III. 연구 방법 및 절차	14
1. 연구대상	14
2. 측정도구	15
3. 연구절차	17
4. 자료분석	18
IV. 연구 결과 및 해석	19
1. 배경 변인에 따른 부모-자녀 간 의사소통유형	19
2. 배경 변인에 따른 진로결정 자기효능감	28
3. 부모-자녀 간 의사소통유형과 진로결정 자기효능감과의 상관관계	39
4. 부모-자녀 간 의사소통유형이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에 미치는 영향	41
V. 요약, 결론 및 제언	43
1. 요약	43
2. 결론	45
3. 제언	46
참고문헌	47
Abstract	53
부 록	56

표 목차

<표 III- 1> 연구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14
<표 III- 2> 의사소통유형 검사지 문항구성 및 Cronbach α 값	16
<표 III- 3> 진로결정 자기효능감 검사지 문항구성 및 Cronbach α 값	17
<표 IV- 1> 자녀 성별에 따른 부-자녀 간 의사소통유형	19
<표 IV- 2> 자녀 성별에 따른 모-자녀 간 의사소통유형	20
<표 IV- 3> 학교성적에 따른 부-자녀 간 의사소통유형	21
<표 IV- 4> 학교성적에 따른 모-자녀 간 의사소통유형	22
<표 IV- 5> 부의 교육정도에 따른 부-자녀 간 의사소통유형	23
<표 IV- 6> 모의 교육정도에 따른 모-자녀 간 의사소통유형	24
<표 IV- 7> 가정의 경제수준에 따른 부-자녀 간 의사소통유형	25
<표 IV- 8> 가정의 경제수준에 따른 모-자녀 간 의사소통유형	26
<표 IV- 9> 부의 연령에 따른 부-자녀 간 의사소통유형	27
<표 IV-10> 모의 연령에 따른 모-자녀 간 의사소통유형	28
<표 IV-11> 자녀 성별에 따른 진로결정 자기효능감	29
<표 IV-12> 성적에 따른 진로결정 자기효능감	30
<표 IV-13> 부의 교육정도에 따른 진로결정 자기효능감	32
<표 IV-14> 모의 교육정도에 따른 진로결정 자기효능감	33
<표 IV-15> 가정의 경제수준에 따른 진로결정 자기효능감	34
<표 IV-16> 부의 연령에 따른 진로결정 자기효능감	36
<표 IV-17> 모의 연령에 따른 진로결정 자기효능감	37
<표 IV-18> 부모-자녀 간 의사소통유형과 진로결정 자기효능감과의 상관관계	39
<표 IV-19> 부모-자녀 간 의사소통유형이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에 미치는 영향	41

I. 서론

1.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부모-자녀 관계는 가장 기본적이고, 친밀하며 지속적인 상호작용을 하는 인간 관계로 어떤 사회적 관계보다 인간의 행동양식을 학습할 수 있는 기초가 된다. 때문에 청소년들이 자라면서 갖게 되는 사고, 가치관, 행동양식은 가정에서 부모-자녀간의 관계에 영향을 받게 된다. 부모-자녀 간 관계형성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는 것이 바로 의사소통유형이다. 부모-자녀관계의 상호작용은 의사소통을 통해서 직접적인 영향을 주고받으며, 그 속에 내포된 의미와 행동양식을 내면화 하여 발달시켜 나가기 때문에 부모의 대화 방식이나 태도, 내용은 부모-자녀 간 감정을 유지시켜주고 상호활동을 향상시켜 주며 자녀의 사회화와 성숙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김경원, 1998). 최근에 이루어지고 있는 연구 결과들을 보면, 청소년기 자녀가 부모와의 의사소통을 개방적이라고 지각할수록 청소년들의 인생태도는 긍정적이며(이재승, 2004), 부모-자녀 간 개방적인 의사소통은 감정을 정화하고 부모로부터 수용되고 이해받고 있다는 느낌을 주어 자녀의 자아존중감을 높여지고, 우울은 낮아진다(박정미, 2004). 부모-자녀 간 개방형 의사소통을 할수록 자아효능감이 높다는 연구(이성민, 2008)를 볼 때, 부모의 의사소통은 자녀의 정서 안정과 건강한 성격 형성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사람은 태어나서 성장하고 사회의 일원으로 활동하면서 셀 수 없이 많은 선택의 상황에 놓이게 된다. 그러한 선택은 일상의 사소한 문제에서부터 ‘장래에 무엇이 될 것인가?’, ‘어떤 직업을 가지고 어떻게 살 것인가?’ 같은 중요한 문제에 이르기까지 다양하다. Tolbert는 개인이 결정해야 하는 수많은 문제들 가운데 진로를 선택하는 일이 가장 중요한 결정의 하나라고 하여 우리가 선택해야 할 일상의 문제 가운데 가장 중요한 일이 진로 선택이라는 사실을 강조한 바 있다(설재풍, 2001, 재인용).

중학교 시기는 다양한 직업군을 탐색하고, 자신의 흥미와 능력을 찾아 자신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잠정적인 진로계획 수립이 이루어져야 할 시기이다. 이 시기에 진로계획을 잘 세워 합리적인 진로의사결정을 하게 되면 자신의 삶에 대한 만족감과 성취감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중학교 학생들 중 자신의 진로문제에 대해 부모님과 상담한다고 응답한 학생이 45.4%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한다는 연구(주장훈, 2006)를 볼 때, 중학생의 진로에도 부모가 많은 영향을 주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부모와의 개방적 의사소통 수준이 높은 학생은 낮은 학생에 비하여 자신이 선택할 진로에 대한 자신감이 높으며, 진로를 선택해가는 직업적 준비의 정도가 높고(신주연, 2006), 합리적 진로의사결정을 한다(안광자, 2004; 김애숙, 2008). 김수리(2005)는 부모의 지지는 여학생이 진로목표를 선택하고 정보를 수집하며 미래계획을 설정하는 데 도움을 주어 진로 효능감을 신장시키고, 특히 부모의 칭찬과 격려, 부모의 직업 역할 모델링은 여학생의 독립성과 진로 준비행동을 향상시키는 데 많은 도움이 된다고 하였고, 엄영순(2008)은 부모의 정서적 지지가 높을수록, 부모의 도구적 조력도가 높을수록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이 높다고 하였다. 이러한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은 진로결정수준 및 진로준비행동에 대한 영향력이 가장 큰 변인이기 때문에 진로결정수준 및 진로준비행동의 향상을 위해서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야한다고 하였다(강정은, 2008). 이러한 연구 결과들을 볼 때 부모-자녀 간 의사소통은 자녀의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에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가정에서 부모-자녀 간 의사소통이 보다 기능적이고 개방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부모교육의 기틀을 마련하고, 가정과 학교의 진로교육에 이론적 기초를 제공하기 위해 부모-자녀 간 의사소통유형과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의 관계를 밝혀보고자 한다.

2. 연구문제 및 가설

중학생이 지각한 부모-자녀 간 의사소통유형과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의 관계를 알아보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연구문제를 설정하였다.

첫째, 중학생이 지각한 부모-자녀 간 의사소통유형은 배경변인(성별, 자녀의 학교성적, 부모의 교육수준, 가정의 경제수준, 부모의 연령)에 따라 어떠한 차이가 있는가?

둘째,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은 배경변인(성별, 자녀의 학교성적, 부모의 교육수준, 가정의 경제수준, 부모의 연령)에 따라 어떠한 차이가 있는가?

셋째, 중학생이 지각한 부모-자녀 간 의사소통유형과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은 어떠한 상관관계가 있는가?

넷째,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에 대한 의사소통유형의 영향력은 어떠한가?

이상의 연구 문제를 구명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연구 가설을 설정하였다.

가설1. 중학생이 지각한 부모-자녀 간 의사소통유형은 성별, 자녀의 학교성적, 부모의 교육수준, 가정의 경제수준, 부모의 연령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있을 것이다.

가설2.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은 성별, 자녀의 학교성적, 부모의 교육수준, 가정의 경제수준, 부모의 연령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있을 것이다.

가설3. 중학생이 지각한 부모-자녀 간 의사소통유형과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은 유의한 상관관계가 있을 것이다.

가설4. 부모-자녀 간 의사소통유형은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을 유의하게 설명할 것이다.

II. 이론적 배경

이 장에서는 의사소통의 개념과 유형,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의 개념, 부모-자녀 간 의사소통유형과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의 관계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1. 의사소통의 개념 및 유형

1) 의사소통의 개념

의사소통은 인간관계에서 가장 보편적이며 기본적인 것으로 사람들 간의 태도, 사실, 믿음, 생각을 전달하는 과정으로 상호 대화를 통해 서로에게 영향을 주고 서로를 이해하는 모든 수단을 포함한다(Gross, Crandall & Knoll, 1980). 현대에 와서 광범위하게 사용되고 있는 의사소통(Communication)은 라틴어의 Communis(공유 또는 공통의 뜻) 혹은 Communicare(협약하다, 공동체 또는 공동성을 이룩한다, 나누어 갖다)라는 말에서 유래되었다. 의사소통 현상은 매우 복잡하고 다양한 특징을 가지고 있어서 의사소통에 대한 정의를 획일적으로 내릴 수가 없기 때문에 학자들마다 그 정의를 달리하고 있다.

Paolucci(1977)는 의사소통은 정보교환, 감정이입의 의미를 포괄하고 있으며 의사를 소통하게 하고 정보를 교환하며 감정을 이입시키는 행위의 수단이라고 정의하였고, Galvin과 Bronnmel은 가족의사소통 측면에서 의사소통을 하나의 '상징적 거래과정' 이라고 보면서 '의미들을 창조하고 공유하는 과정' 으로 정의하며, 의사소통에는 언어적 행동뿐만 아니라 얼굴표정, 눈맞춤, 몸짓, 움직임, 자세, 용모와 공간적 거리를 포함하는 모든 비언어적 행동들이 상징적으로 사용되고 있다. 만일 가족 간에 의미를 상호간에 공유하지 못할 때는 의사소통이 매우 어렵게 될 수 있기 때문에 부모들은 청소년 자녀들에게 대화할 수 있는 기회

를 마련해주고 공감하면서 경청한다면 부모-자녀 간의 의사소통이 증진될 수 있다고 하였다(최인경, 2001, 재인용).

의사소통에 대한 국내 연구로 정명희(1998)는 인간의 감정, 느낌, 태도, 생각 등의 메시지를 언어·비언어적인 수단을 통하여 상호간의 행동에 영향을 주고받는 매개체로서 대인관계의 순환적인 과정 및 행동이며, 가장 중요한 인간관계 과정으로 인간 사회에 필수적이라고 정의하였다. 양민철(2005)은 부모-자녀 간 의사소통이란 부모-자녀 사이에 상징적인 의미를 지닌 생각, 느낌, 감정, 사상, 태도 등을 언어적, 비언어적인 방법으로 지속적으로 교류하는 과정에서 상호간의 관계를 강화시키거나 약화시키기도 하는 핵심적 요소라고 정의하였다.

조은경(1992)은 가족 내에서의 의사소통이란 '부모와 자녀 사이의 상호작용에서 감정, 느낌, 생각, 태도 등의 메시지를 전달하는 수단으로 상호간의 공통적 이해를 도모하는 상호 방향적 과정'으로 정의하고 있다. 의사소통은 효율적인 인간 상호간의 접촉을 유지시킴으로써 가정에서는 가족원들 간의 상호작용을 촉진시키고 성인 사회에서는 서로의 정보 교환과 이해를 가능하게 하여 자녀의 사회화와 교육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하였다(김순옥, 1991; 장호선, 1986).

이러한 견해들을 종합해 볼 때, 부모-자녀 간 의사소통은 부모와 자녀 사이에 언어적·비언어적인 방법을 통해 감정, 느낌, 태도, 생각 등의 메시지를 주고받는 과정 및 행동이라 할 수 있다.

2) 의사소통의 유형

의사소통은 가정에서는 가족원들 간의 상호작용을 촉진시키고 사회에서는 서로의 정보교환과 이해를 가능하게 하며 청소년 자녀의 심리적인 자기존중감 발달과 사회화 교육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하였다(신주연, 2005).

Beaubien은 의사소통의 과정에서 일어나는 메시지의 선택, 메시지의 전달, feedback의 요소를 어떤 범주의 집단으로 특성화시켜 의사소통의 유형을 구분하였다. 즉 부모-청소년 자녀 간 의사소통유형을 자녀의 대화 행동과 어머니의 반응을 관련지어 쌍방 차단형, 청소년 차단-어머니 개방형, 청소년 개방-어머니 차단형, 쌍방 개방형의 4가지로 분류하였다. 쌍방 차단형은 청소년의 대화행동과

어머니의 반응 점수가 모두 낮은 의사소통유형이며, 청소년 차단-어머니 개방형은 청소년의 대화행동 점수가 낮고 어머니의 반응 점수가 높은 유형이며, 청소년 개방-어머니 차단형은 청소년의 대화행동 점수가 높고 어머니의 반응점수가 낮은 유형이며, 쌍방 개방형은 청소년의 대화행동 점수와 어머니의 반응 점수가 모두 높은 유형을 말한다(이정우, 김규원 1989, 재인용).

Bernstein(1971)은 가족역할 체계에 초점을 맞추어 의사소통유형을 지위지향성과 인성지향성으로 분류하였다. 지위지향성은 각 개인의 사회적 지위에 입각하여 제한된 언어를 사용하며 개인의 행동이 역할기대에 의해 통제된다. 따라서 폐쇄적 의사소통양식을 가지게 된다. 인성지향성은 가족 구성원의 귀속적 지위보다는 심리적 속성이나 상황에 따라 역할이 달라지므로 조건에 따라 변할 수 있는 융통성을 가지며 개방적 의사소통양식을 하게 된다고 하였다.

Gorden(1975)은 부모-자녀간의 의사소통유형을 You-message와 I-message로 구분하였다. You-message는 명령, 경고, 설교 등으로 자녀를 비난하거나 평가하는 형태의 의사소통을 말한다. I-message는 자녀의 행동에 대해 부모 자신이 어떻게 느끼는지를 전달함으로써 부모의 입장과 느낌을 알려 주고 자녀로 하여금 자신의 감정을 자유롭게 표현하도록 해주는 것이다. 즉 I-message는 자녀의 행동에 대한 책임을 자녀 자신이 갖게 하기 때문에 행동변화에 효과를 가져오며 자녀의 긍정적인 자아관을 형성하는 데 효과가 있다.

Barnes와 Olson(1985)은 부모와 청소년 자녀간의 의사소통유형을 순환모형(Circumplex Model)에 기초하여 가족의 응집성과 적응성이 기능적인 수준으로 되도록 도와주는 개방적이고 순기능적인 의사소통유형과 그것을 방해하는 폐쇄적이고 역기능적인 의사소통유형으로 구분하였다. 개방형 의사소통은 부모-자녀간의 상호작용에 있어 사실이나 감정을 억압받지 않고 자유롭게 사실 또는 감정을 표현하는 긍정적 의사소통을 의미한다. 개방적 의사소통을 하는 기능적 가족은 분명한 의사소통망을 성립하고 유지하는 방법을 발전시켜 나가며 상호 의사소통을 통하여 긍정적 순환효과를 주고받는다. 문제형 의사소통은 세대 간 의사소통에 어느 정도의 어려움과 장애가 있는가를 측정하기 위한 것으로 의사소통 중에서 부정적인 측면에 초점을 두고 있다. 즉, 문제형 의사소통은 청소년기 자녀가 부모와의 의사소통에 있어 의사교환 및 주제선택에 조심·주저·회피하며

부모로부터 애정적 표현보다는 비난적 표현을 더 많이 경험함으로써 의사소통에서 거리감이나 벽이 느껴지는 부정적 의사소통을 의미한다. 이러한 문제형 의사소통을 하는 가족은 상대방의 의견에 긍정적인 반응을 하지 않으며, 새로운 상황에 대처할 수 있는 기술 및 능력이 부족하다고 본다.

이외에도 김정희(1987)는 청소년기 자녀와 어머니간의 의사소통유형을 수평협력적인 쌍방향행식과 수직·강압·지시적인 일방통행식으로 구분하였고, 송성자(1985)는 한국인의 역기능적 의사소통유형을 권위지향형·불성실지향형·희생지향형·지배지향형·소심지향형으로 분류하였다.

이상에서 언급한 이론들을 종합해 볼 때 부모-자녀 간 의사소통유형은 연구자의 이론과 관점에 따라 다양하게 제시되고 있으나, 공통적으로는 의사소통유형에 따라 가족관계,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 자녀의 다양한 발달과 특성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정리할 수 있다.

이 연구에서는 부모와 자녀 사이에 억압받지 않고 자유롭게 사실 또는 감정을 표현하는 경우와 부모와의 의사소통에 있어 의사교환 및 주제선택에 조심·회피하며 의사소통에서 거리감이나 벽이 느껴지는 경우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이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 분석하기 위해 개방적 의사소통의 중요성을 강조한 Barnes와 Olson(1985)의 분류를 따르고자 한다.

2. 진로결정 자기효능감

1)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의 개념

진로결정 자기효능감(Career Decision-Making Self-Efficacy)의 개념을 분명하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자기효능감(Self-Efficacy)’의 개념을 먼저 살펴보아야 한다.

Bandura(1977)는 어떤 과제를 수행하는데 요구되는 일련의 행동을 조직하고 실행하는 자신의 능력에 대한 믿음을 자기효능감이라고 하였다. Kanfer는 자기

효능감은 애매하고 예상할 수 없는 때로는 긴장되는 요소가 많이 포함되어 있는 구체적인 상황을 다루는데 요구되는 행동들을 얼마나 잘 조직하고 수행할 수 있는가에 대한 판단이라고 정의하였다(이성식, 2007, 재인용). 자기효능감은 어떤 행동이 기대한 결과를 얻을 수 있는 능력에 대한 확신으로 과제에 정진하도록 하는 주요한 심리적 자질로 인간이 행동을 결정해주는 주요한 변인들과 행동을 연관시켜 주는 인지적 매개 역할을 하며, 인간의 사고유형, 정서지능, 학교적응, 행동 및 역할수행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본다고 하였다(윤미애, 2003).

Bandura(1977)에 따르면 청년기까지 어떠한 환경에 노출되었는지에 따라 개인의 자기효능감이 구성되는데, 자기효능감은 수행 성취, 대리적 경험, 언어적 설득, 생리적 상태의 4가지 요인을 통하여 형성된다. 수행 성취 경험은 자기효능감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결정요인의 하나로 어떤 과제에 대하여 성공을 하면 자기효능감은 증가하고 반대로 실패하면 자기효능감이 감소하게 되는 수행경험에 따라 영향을 받는 경우이다. 대리적 경험을 통한 효능감 형성은 타인의 수행을 관찰함으로써 자신도 그 과제나 유사한 과제를 수행할 수 있다는 대리 경험을 통한 효능감 형성을 말한다. 또한 다른 사람의 칭찬이나 격려와 같은 언어적 설득에 의해서도 자기효능감이 증진될 수 있다고 보았으며, 자신의 신체적 흥분의 원인이 무엇인지를 지각하는 생리적 상태에 따라 개인의 효능감은 달라질 수 있다고 보았다. 이러한 요인들은 개인의 자기효능감 형성에 영향을 주고 자기효능감 수준을 결정하게 된다는 것이다. Bandura(1977)의 사회인지론에 의하면 특정 행동 영역에 대한 낮은 자기효능감은 그 행동을 회피하게 하며, 반대로 높은 자기효능감은 그 행동에 더 적극적으로 접근하게 하는 경향이 있다고 설명하고 있다. 즉, 자기효능감은 자신의 능력에 대한 기대나 신명에 관련된 동기의 하나로 볼 수 있다. 자기효능감은 어떠한 목표설정이나 이를 이겨내는 인내와 실패하였다 하여도 이에 대처하는 동기적 과정에도 영향을 준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사회인지적 이론을 바탕으로 개인의 진로선택 행동과 관련된 연구들이 활성화되고 있다.

Hackett & Betz(1981)는 자기효능감 이론을 바탕으로 진로선택과 적응에 관련된 개인의 효능감을 특별히 ‘진로 자기효능감(Career Self-Efficacy)’으로 개념화하였다. 이들은 자기 효능감이 인간행위와 관련된 다양한 심리적 변인을

설명하고 예언할 때 중요하다라는 사실에 입각하여 처음으로 자기효능감 이론을 진로와 직업분야에 적용하였다.

Hackett & Betz 이후 수학적 자기효능감, 과학적, 기술적 진로 등 특정 영역과 관련된 자기효능감 연구가 진행되어 왔다(최정인, 2006 재인용). 이를 다시 Tylor와 Betz(1983)가 개인의 진로결정을 하는데 필요한 과업을 성공적으로 달성할 수 있는 개인의 신념정도를 측정하기 위한 ‘진로결정 자기효능감 척도(CDMSE : Career Decision-Making Self-Efficacy)’를 개발하면서 수학이나 과학, 혹은 공학계열과 같은 특정 진로 영역과 관련된 자기효능감과는 달리 일반적인 진로결정과 관련된 자기효능감을 제안하여 특정 과제에 국한되었던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을 일반적인 진로결정 자기효능감 개념으로 전환하였다. 이들은 특정 영역을 잘 할 수 있는지보다는 일반적인 진로결정과 관련된 과제, 행동과 직접적으로 연관된 개인의 자기효능감 기대를 측정하는 도구를 제작하여 진로 전반에 걸친 자기효능감을 수량화하였다. CDMSES-SF는 효과적인 진로결정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과제들에 대해서 이를 완수할 수 있다는 개인의 믿음의 정도를 측정하기 위해서 개발되었다. 하위영역으로는 자기평가, 직업정보, 목표선택, 미래계획, 문제해결로 구성되어 있다. 자기평가는 자신의 능력과 가치, 욕구 등을 정확히 평가하고, 그에 적합한 직업을 평가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나타내는 항목들로 구성되어 있다. 직업정보는 관심 있는 직업을 찾아내고 그 직업의 조건들을 구체적으로 탐색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나타낸다. 목표설정 은 자신의 학업이나 진로를 자신 있게 결정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나타내는 문항들로 구성되어 있다. 미래계획은 진학, 취업 등에 대한 계획을 세우고 실천할 수 있다는 스스로에 대한 믿음을 나타내는 문항들로 구성되어 있다. 문제해결은 스스로가 헤쳐 나갈 수 있을 것이라는 믿음을 나타내는 항목들로 구성되어 있다.

Hackett & Betz(1981)는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은 진로결정과 관련된 과업을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개인의 능력에 대한 신념이라고 정의하였다. 이현주(2000)는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은 개인이 자신의 진로목표를 성취할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한 신념 혹은 유능감으로 정의할 수 있으며, 전공이나 직업의 선택과 같은 진로행동을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자신의 능력에 대한 지각을 의미한다고 정의하였고, 이성식(2007)은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은 자신의 진로목표를 성

공적으로 수행하고 성취하기 위해서 필요한 진로결정능력에 대한 신념 혹은 유능감이라 정의하였다.

따라서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은 진로결정과 관련된 목표를 세우고 요구되는 일련의 행동을 계획하고 실행할 수 있다는 자신에 대한 유능감이라 할 수 있다.

2)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의 중요성

Hackett & Betz는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의 수준이 낮은 개인은 진로 결정을 하는 데 필요한 과업이나 행동을 회피하는 경향이 강하고, 진로결정 효능감의 수준이 높은 개인은 그러한 행동을 적극적으로 하려는 경향이 강하다고 하였다.(이태정, 2003, 재인용).

이기학·이학주(2000)는 진로태도 성숙과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의 관련성에 대한 연구에서 진로태도 성숙 정도를 예언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변수는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이며, 그 설명력은 40%라고 밝혔고, 이은경(2000)은 중·고·대학생을 대상으로 자기효능감이 진로발달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에서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은 학년이 올라가면서 증가하고 특히, 대학 이후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이 많이 증가한다고 하였다. 안정된 부모와의 애착은 친구와의 애착으로 전이되고 청년기가 시작되면서 부모에 대한 애착이 약화되는 동시에 동년배에 대한 애착이 커지면서 부모뿐만 아니라 동년배와의 우정이 개인의 진로발달에 중요한 요인이 될 수 있다고 하여, 부모뿐만 아니라 동년배와의 우정이 개인의 진로발달에 중요한 요인이 된다고 하였다. 강정은(2008)은 진로결정수준 및 진로준비행동에 대한 영향력이 가장 큰 변인은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이기 때문에 진로결정수준 및 진로준비행동의 향상을 위해서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야한다고 하였다.

이상의 연구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은 진로결정수준 및 진로준비행동, 진로태도 성숙 등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변인임을 알 수 있다.

3. 선행연구 고찰

부모-자녀 간 의사소통유형과 진로와 관련된 변인과의 연관성은 지금까지 여러 연구에서 보고되고 있다.

김미숙(2007)은 부모와의 의사소통을 거의 매일 하는 학생들은 그렇지 않은 학생들보다 개방형 의사소통을 더 많이 하고, 대화횟수와 대화시간이 많을수록 진로성숙도가 높으며, 가정에서 개방적이고 촉진적인 의사소통을 경험한 학생들은 심리적으로 안정감을 얻을 수 있으며, 진학과 진로에 대한 탐색과 준비를 통하여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하게 된다고 하였다. 부모-자녀 간 의사소통유형이 자녀의 진로의사결정과의 관계에 대한 연구(안광자, 2004; 김애숙, 2008)에서 자녀는 부모와 개방형 의사소통을 할수록 합리적 유형의 진로의사결정을 하며, 부모와 문제형 의사소통을 할수록 직관적이거나 의존적인 진로의사결정을 한다고 밝혔다.

따라서 합리적 진로의사결정을 하기 위해서는 부모에게 자신의 생각이나 가치관, 감정, 고민 등을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는 개방형 의사소통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부모와의 의사소통과 자아존중감 및 진로성숙도에 관한 연구들(백남근, 2001; 구자현, 2005; 신주연, 2006; 정미숙, 2007)에서 부모-자녀 간 의사소통유형이 개방적일수록 자아존중감과 진로성숙도가 높고 자아존중감이 높을수록 진로성숙도가 높아 부모와의 의사소통과 자아존중감 및 진로성숙도는 상호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고 밝혔다. 특히, 정미숙(2007)은 부모와의 개방적 의사소통은 자아존중감 형성에 기여함으로써 간접적으로 진로성숙도 향상에 영향을 준다고 하였다. 조민희(2007)는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부모-자녀 간 의사소통방식의 기능성 정도에 따라 자녀의 자아존중감 수준과 대학생활 적응, 진로준비행동의 수준이 어떻게 달라지는지에 대한 연구에서 부모의 기능적 의사소통은 자녀의 자아존중감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고, 자녀의 진로준비행동에는 부모의 기능적 의사소통 방식 모두가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밝혔다.

따라서 부모의 기능적 의사소통은 자녀의 자아존중감을 향상시키고 진로준비 행동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전병화(2008)는 자기분화가 고등학생의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에서 자기분화의 하위영역 중 자아의 통합, 정서적 단절, 가족퇴행이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청소년들의 자기분화를 돕기 위해 부모들은 자녀를 긍정적으로 존중하며 수용적인 자세로 자녀가 자기 존중감과 자신에 대한 신뢰감과 자신감을 가질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양승민(2003)은 대학생들이 지각한 가족상호작용 양식들 가운데 가족이 지지하는 목표와 가족체계의 조직정도가 진로결정 자기효능감과 밀접한 관련이 있고, 개인적 성장 영역의 하위영역들 중에 독립성, 지적-문화적 지향성 그리고 도덕적-종교적 강조가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의 중요한 예측 변인이라고 밝혔다. 관계영역에 속하는 원가족의 갈등과 목표선택 문제해결에서의 자기효능감 간에는 부적 상관이라고 밝혀 가족의 지지가 진로결정 자기효능감과 밀접한 관련이 있음을 밝혔다.

엄영순(2008)은 부모의 정서적 지지가 높을수록, 부모의 도구적 조력도가 높을수록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이 높다고 하였고, 김수리(2005)는 부모의 지지는 여학생이 진로목표를 선택하고 정보를 수집하며 미래계획을 설정하는 데 도움을 주어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을 신장시키고, 진로결정에 관해 혼란스럽고 갈등에 직면해 있는 여학생 자녀에게 정서적 지지를 제공하여 진로문제를 타협하게 하며 진로결정을 내리도록 돕는다고 했다. 백미화(2008)는 청소년이 부모의 양육태도가 애정적이고, 자율적이고, 성취적이며, 합리적으로 지각하는 집단은 부모의 양육태도가 적대적이고, 통제적이고, 비성취적이고, 비합리적이라고 지각하는 집단에 비해 진로결정 자기효능감과 진로태도 성숙 수준이 높다고 하였다. 때문에 부모의 적극적·신뢰적 양육태도가 자녀의 진로발달에 긍정적 영향을 주는 중요한 요인이며 부모가 애정적·자율적·성취적·합리적으로 자녀를 양육할수록 자녀는 안정적이며 체계적인 진로발달을 할 수 있다고 밝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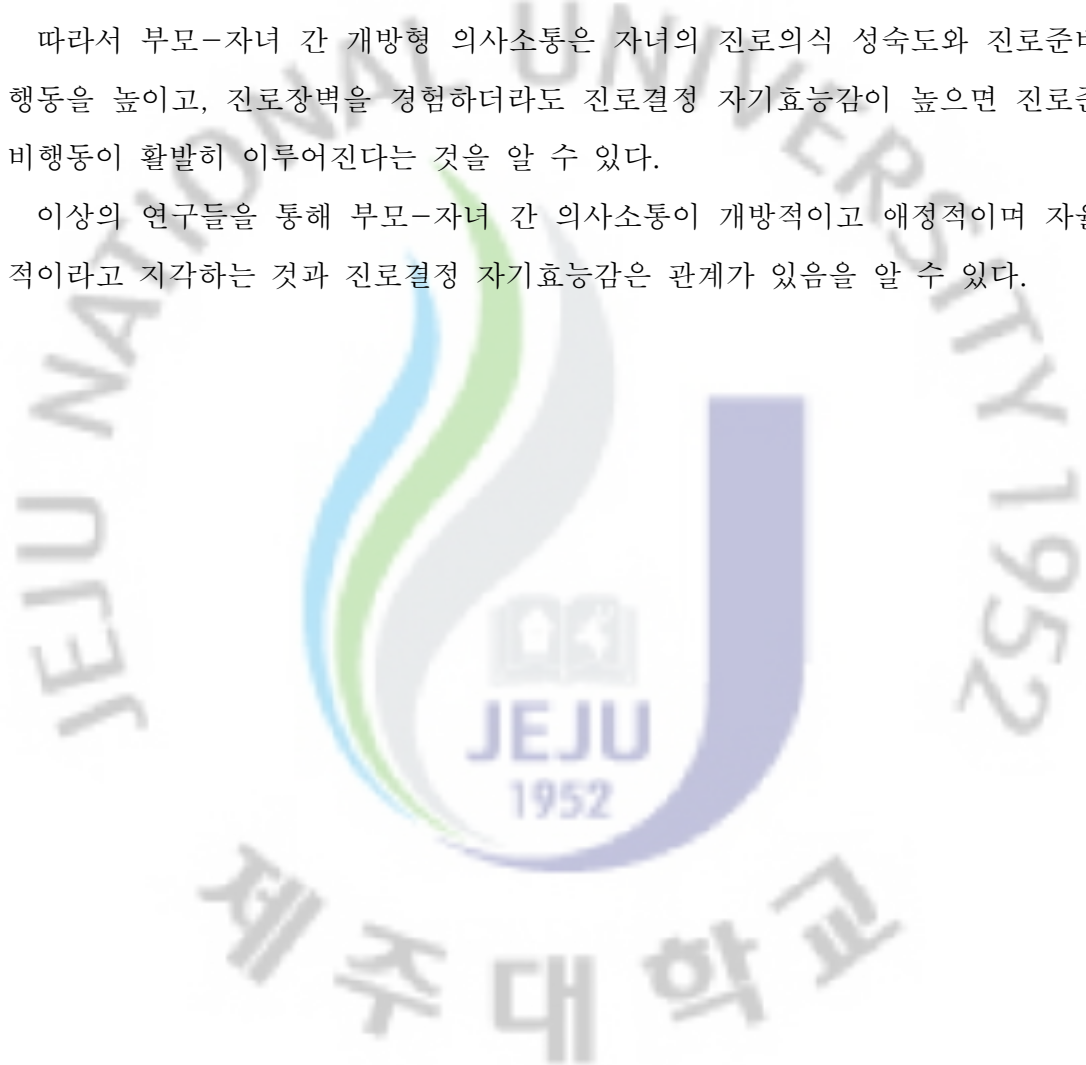
이를 통해 부모의 칭찬과 격려, 부모의 적극적·신뢰적 양육태도가 자녀의 진로발달에 긍정적 영향을 주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부모-자녀 간 의사소통유형이 진로의식성숙과 진로장벽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심경보, 2008)에서 중·고등학생 중 부모와 개방형 의사소통을 많이 하는 집단은 진로의식 성숙 점수가 높은 반면, 부모와 문제형 의사소통을 많이 하는

집단은 진로의식 성숙 점수가 낮고, 진로장벽을 높게 경험한다고 밝혔다. 유미정 (2008)은 전문대학 비서학 전공생이 인식한 진로장벽,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이 진로 준비행동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에서 진로장벽이 높다고 느낄수록 진로준비를 위한 행동이 부진하나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이 높으면 진로준비행동이 보다 적극적이며 활발히 이루어지기 때문에 높은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은 진로준비행동을 적극적으로 유도할 수 있다고 하였다.

따라서 부모-자녀 간 개방형 의사소통은 자녀의 진로의식 성숙도와 진로준비행동을 높이고, 진로장벽을 경험하더라도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이 높으면 진로준비행동이 활발히 이루어진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상의 연구들을 통해 부모-자녀 간 의사소통이 개방적이고 애정적이며 자율적이라고 지각하는 것과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은 관계가 있음을 알 수 있다.



Ⅲ. 연구 방법 및 절차

이 장에서는 중학생이 지각한 부모-자녀 간 의사소통유형과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의 관계를 알아보기 위한 연구 실시에 따른 연구 대상, 측정 도구, 자료의 분석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1. 연구대상

이 연구는 제주도내에 소재한 중학교 3학년 학생 584명을 연구대상으로 하였다. 연구대상의 일반적 특성에 대해 배경 요인을 중심으로 살펴보면 <표 III-1>과 같다. 자료 분석을 할 때 일부 문항들에 대해 무응답한 경우, 결측치로 처리하였기 때문에 연구대상의 수는 변인별로 각각 다를 수 있다.

<표 III-1> 연구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배경요인	구분	N	%
성별	남	262	44.9
	여	322	55.1
아버지의 학력	전문대졸이상	263	46.0
	고졸이하	309	54.0
어머니의 학력	전문대졸이상	195	34.6
	고졸이하	370	65.4
가정의 경제수준	높은 편	84	14.9
	보통	427	75.8
	낮은 편	52	9.3
아버지의 연령	36세~46세	326	56.6
	47세~74세	250	43.4
어머니의 연령	32세~43세	466	81.2
	44세~58세	108	18.8
성적	80점 이상	300	51.6
	60~79점	158	27.1
	60점미만	124	21.3

2. 측정도구

이 연구에 사용된 측정 도구는 부모-자녀 간 의사소통유형 검사지, 진로결정 자기효능감 검사지이며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부모-자녀 간 의사소통유형 검사

중학생이 지각한 부모-자녀 간 의사소통을 측정하기 위하여 Barnes와 Olson (1985)이 제작한 부모-자녀 간 의사소통 척도(Parent-Adolescent Communication Inventory) 중 청소년 자녀용 질문지를 우리나라 실정에 맞추어 김윤희 (1990)가 번안한 것을 사용하였다. 부모-자녀 간 의사소통 척도 중 자녀용 질문지는 총 40문항으로 부-자녀와 모-자녀 간 의사소통에 있어 '개방성 정도와 문제성 정도'를 측정하는 2개의 하위척도로 이루어져 있으며, 각각의 하위차원은 10개의 문항으로 구성되었다.

개방성 정도를 측정하는 개방형 의사소통 척도는 부모와의 의사소통 과정에서 자유롭게 자신의 의사를 표현할 수 있는 긍정적인 면을, 부모와의 의사소통의 폐쇄성 정도를 측정하는 문제형 의사소통 척도는 의사교환에 있어 주저하고, 주제 선택에 있어 조심하며, 의사소통이 원만히 이루어지지 않는 부정적인 면을 파악하는데 이용된다.

부모-자녀 간 의사소통은 부모와의 의사소통을 개별적으로 측정하여 나타난 점수의 합으로 측정되어지는데 이 연구에서는 '전혀 그렇지 않다'는 1점, '그렇지 않다'는 2점, '보통이다'는 3점, '그렇다'는 4점, '항상 그렇다'는 5점으로 점수화 하였으며, 개방형 의사소통에서는 점수가 높을수록 의사소통이 개방적·긍정적이고, 문제형 의사소통에서는 점수가 높을수록 의사소통이 폐쇄적·부정적임을 의미한다.

김윤희(1990)의 연구에서는 개방형 의사소통유형의 Cronbach α 값은 .82, 문제형 의사소통유형의 Cronbach α 값은 .72, 총 척도 Cronbach α 값은 .86이었다.

이 연구에 사용한 부모-자녀 간 의사소통 척도에 대한 Cronbach α 값은 <표 III-2>와 같이 나타났다.

<표 III-2> 의사소통유형 검사지 문항구성 및 Cronbach α 값

의사소 통유형	문항 번호	문 항 수	신뢰도 (Cronbach α)		
			이 연구		김윤희 연구(1990)
개방형	부 1, 3, 5, 7, 9, 11, 13, 15, 17, 19	10	.879	.908	.82
	모 1, 3, 5, 7, 9, 11, 13, 15, 17, 19	10	.903		
문제형	부 2, 4, 6, 8, 10, 12, 14, 16, 18, 20	10	.815	.878	.72
	모 2, 4, 6, 8, 10, 12, 14, 16, 18, 20	10	.856		
전 체		40	.572	.572	.86

2) 진로결정 자기효능감 검사

이 연구에서는 진로결정 자기효능감 수준을 알아보기 위하여 Taylor와 Betz (1983)가 개발한 Career Decision-Making Self-Efficacy Scale 단축형(CDMSES-SF)을 이은경(2000)이 대학생뿐만 아니라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타당화한 것을 사용하였다.

CDMSES-SF는 효과적인 진로결정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과제들에 대해 이를 완수할 수 있다는 개인의 믿음의 정도를 측정하기 위해서 개발되었다. 25가지의 진로결정과 관련된 과제에 대해서 자신의 자신감 정도를 5점 척도로 응답하게 되는데 높은 점수를 보일수록 강한 자신감을 나타내는 것이다. 이은경(2000)의 연구에서는 원래 CDMSES-SF의 첫 번째 요인인 자기평가가 제외되어, 4개의 하위영역으로 분류하였고, 진로결정 자기효능감 척도에 대한 Cronbach α 값은 목표선택 .76, 직업정보 .64, 문제해결 .79, 미래계획 .78, 진로결정 자기효능감 전체 .85로 보고하였다.

이 연구에 사용한 진로결정 자기효능감 척도에 대한 Cronbach α 값은 .898이고 진로결정 자기효능감 검사의 하위영역별 구성 문항 및 신뢰도는 <표 III-3>과 같다.

<표 III-3> 진로결정 자기효능감 검사지 문항구성 및 Cronbach α 값

요 인	문항 번호	문항수	신뢰도 (Cronbach α)
목표선택	1, 2, 3, 6, 8, 9, 11, 14, 18, 20, 22	11	.871
직업정보	7, 15, 19, 21, 23, 24	6	.714
문제해결	13, 17, 25	3	.652
미래계획	4, 5, 10, 12, 16	5	.639
전 체		25	.898

3. 연구절차

이 연구의 자료는 1회의 예비조사와 1회의 본조사를 통해 수집되었으며, 그 절차는 다음과 같다.

1) 예비조사

1차 예비조사는 2008년 11월 연구자가 담당하고 있는 학급 40명을 대상으로 실시하였고, 그 결과 적절치 않은 문항을 수정·보완한 후 본조사를 실시하였다.

2) 본조사

본조사는 2008년 12월 11일부터 12월 23일까지에 걸쳐 제주도내 중학교 3학년을 대상으로 실시하였다. 각 반의 담임선생님께 실시 의도와 목적을 설명한 후 질문지를 배부하여 응답하게 하고 회수하는 방법을 취하였다. 총 700부를 배부하였고, 그 중 673부(96.1%)가 회수되었다. 회수된 673부 가운데서 불성실하거나 무응답인 경우, 부와 모에 대한 질문지 중에서 한쪽 부모에 대해서만 응답한 경우 등 89부(13.2%)를 제외한 나머지 584부(86.8%)를 최종 분석하였다.

4. 자료분석

이 연구의 자료 분석은 SPSS WIN 12.0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다음과 같이 분석하였다.

- 1) 측정 도구의 문항 간 내적 일치도를 알아보기 위하여 Cronbach ' α 값을 산출하였다.
- 2) 연구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을 알아보기 위하여 빈도와 백분율을 산출하였다.
- 3) 배경변인에 따른 부모-자녀 간 의사소통유형과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에 차이가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변량분석을 실시하였다.
- 4) 부모-자녀 간 의사소통유형과 진로결정 자기효능감 간의 관계를 알아보기 위해 상관분석을 실시하였다.
- 5) 부모-자녀 간 의사소통유형이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에 미치는 영향력을 알아보기 위해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IV. 연구 결과 및 해석

중학생이 지각한 부모-자녀 간 의사소통유형과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의 관계를 알아보기 위한 조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및 해석은 다음과 같다.

1. 배경 변인에 따른 부모-자녀 간 의사소통유형

가설1. 중학생이 지각한 부모-자녀 간 의사소통유형은 성별, 자녀의 학교성적, 부모의 교육수준, 가정의 경제수준, 부모의 연령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있을 것이다.

1) 자녀 성별에 따른 부모-자녀 간 의사소통유형

자녀의 성별에 따른 부모-자녀 간 의사소통유형의 차이가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 변량분석을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는 <표 IV-1>, <표 IV-2>에 제시하였다.

(1) 자녀 성별에 따른 부-자녀 간 의사소통유형

<표 IV-1> 자녀 성별에 따른 부-자녀 간 의사소통유형

구분	성별	N	M	SD	F	p
부-개방형	남자	262	31.39	6.955	.911	.340
	여자	322	30.78	8.288		
부-문제형	남자	262	21.63	6.144	.022	.881
	여자	322	21.55	6.670		

<표 IV-1>에서 아버지의 개방형 의사소통은 남학생(M=31.39)이 여학생(M=30.78)보다 높게 나타났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는 아니다. 아버지의 문제형 의사소통은 남학생(M=21.63)이 여학생(M=21.55)보다 높게 나타났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는 아니다.

(2) 자녀 성별에 따른 모-자녀 간 의사소통유형

<표 IV-2> 자녀 성별에 따른 모-자녀 간 의사소통유형

구분	성별	N	M	SD	F	p
모-개방형	남자	262	34.04	7.222	9.256**	.002
	여자	322	36.07	8.589		
모-문제형	남자	262	22.65	7.267	6.895**	.009
	여자	322	21.04	7.408		

**p<.01

<표 IV-2>에서 어머니의 개방형 의사소통은 여학생(M=36.07)이 남학생(M=34.04)보다 높게 나타났고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다(p<.01). 어머니의 문제형 의사소통은 남학생(M=22.65)이 여학생(M=21.04)보다 높게 나타났고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다(p<.01). 자녀의 성별에 따른 부-자녀 간 의사소통유형은 유의한 차이가 없고, 모-자녀 간 의사소통은 여학생이 어머니와 개방형 의사소통을 더 많이 하고 남학생은 어머니와 문제형 의사소통을 더 많이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어머니와 개방형 의사소통은 여자가 높고, 문제형 의사소통은 남자가 높다고 한 선행연구(이혜숙, 1998; 김근화, 2004; 박정자, 2005)의 결과와 일치한다. 장휘숙(1990)의 연구에 따르면 아동은 물론 청소년들도 아버지보다 어머니를 심리적으로 더 가깝게 지각하며, 사춘기가 시작되었다 할지라도 부모로부터 정서적 지원을 필요로 하는 청소년들은 가정 바깥에서 대부분의 시간을 보내는 아버지보다 직접적 양육을 맡고 있는 어머니에 대해 심리적으로 더 가깝게 느낀다고 하였다. 아버지보다 어머니를 심리적으로 더

가깝게 지각하기 때문에 아버지보다 어머니와 개방형 의사소통을 더 많이 하는 것으로 사료된다.

이 연구 결과와 선행연구를 종합해 볼 때 모-자녀 간 의사소통은 여학생이 어머니와 개방형 의사소통을 더 많이 하고 남학생은 어머니와 문제형 의사소통을 더 많이 한다고 할 수 있다.

2) 학교성적에 따른 부모-자녀 간 의사소통유형

자녀의 학교성적에 따른 부모-자녀 간 의사소통유형의 차이가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 변량분석을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는 <표 IV-3>, <표 IV-4>에 제시하였다.

(1) 학교성적에 따른 부-자녀 간 의사소통유형

<표 IV-3> 학교성적에 따른 부-자녀 간 의사소통유형

구분	성적	N	M	SD	F	p
부-개방형	80점이상	300	32.47	7.891	10.796***	.000
	60~79점	158	29.70	7.723		
	60점미만	124	29.36	6.668		
부-문제형	80점이상	300	20.32	6.094	12.320**	.000
	60~79점	158	23.07	7.036		
	60점미만	124	22.70	5.856		

*** p<.001

<표 IV-3>에서 아버지의 개방형 의사소통은 자녀의 학교성적이 80점 이상(M=32.47)인 학생이 60점~79점(M=29.70)과 60점미만(M=29.36)인 학생보다 높게 나타났고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다(p<.001). 아버지의 문제형 의사소통은 자녀의 학교성적이 60~79점(M=23.07)인 학생이 60점미만(M=22.78)과 80점 이상(M=20.32)인 학생보다 높게 나타났고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다(p<.001).

(2) 학교성적에 따른 모-자녀 간 의사소통유형

<표 IV-4> 학교성적에 따른 모-자녀 간 의사소통유형

구분	성적	N	M	SD	F	p
모-개방형	80점이상	300	35.79	8.249	6.494**	.002
	60~79점	158	35.79	7.608		
	60점미만	124	32.87	7.853		
모-문제형	80점이상	300	20.81	7.227	6.132**	.002
	60~79점	158	22.22	7.605		
	60점미만	124	23.45	7.204		

** p < .01

<표 IV-4>에서 어머니의 개방형 의사소통은 학교성적이 80점 이상(M=35.79)과 60점~79점(M=35.79)인 학생이 60점미만(M=32.87)인 학생보다 높게 나타났고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다(p < .01). 어머니의 문제형 의사소통은 학교성적이 60점미만(M=23.45)인 학생이 60점~79점(M=22.22)과 80점 이상(M=20.81)인 학생보다 높게 나타났고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다(p < .01). 자녀의 학교성적에 따른 부모-자녀 간 의사소통유형의 차이를 살펴본 결과 자녀의 성적이 높을수록 부모-자녀 간 개방형 의사소통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부모의 개방형 의사소통유형과 자녀의 학업 성취 간 정적 상관이 있으며, 부모의 문제형 의사소통유형과 자녀의 학업 성취 간 부적 상관이 있다는 추은경(2002)의 연구와 일치하고, 학교성적에 따라 부모-자녀 간 의사소통유형은 유의미한 차이가 없다는 박정자(2005)의 연구와는 일치하지 않는다. 이 연구에서 특이한 점은 학생의 학교성적이 60~79점인 경우, 아버지와 문제형 의사소통 평균이 가장 높다는 점이다. 백미숙(2000)의 연구에 따르면 청소년과 부모의 갈등 영역 중 성적과 관련된 영역의 갈등이 높고, 갈등표출방법은 부모와의 대화가 만족스럽지 않을수록 언쟁, 폭력의 공격적인 방법으로 갈등을 표출한다고 하였다. 이 연구의 질문조사가 이루어진 12월은 중학교 3학년 학생이

고등학교 입학 원서를 쓴 직후이다. 성적이 60점~79점인 학생들은 일반계 고등학교 혹은 전문계 고등학교를 선택하는 과정에서 성적으로 인한 부모와의 갈등이 다른 집단에 비해 심했을 것이다. 따라서 학교성적이 60~79점인 학생이 아버지와의 문제형 의사소통을 많이 한다고 지각했을 것이라 사료된다.

이 연구 결과와 선행연구를 종합해 볼 때 부모-자녀 간 의사소통은 자녀의 학교성적이 높을수록 개방형 의사소통을 많이 하고, 성적이 낮을수록 문제형 의사소통을 많이 한다고 할 수 있다.

3) 부모의 교육정도에 따른 부모-자녀 간 의사소통유형

본래 질문지에서는 부모의 학력이 ‘대학원 이상, 대학교 졸업, 전문대 졸업, 고등학교 졸업, 중학교 졸업 이하’ 5단계 척도로 제시하였으나, ‘전문대졸 이상, 고졸 이하’ 두 집단으로 재편성한 후 두 집단 간 차이검증을 실시하였다.

부모의 교육정도에 따른 부모-자녀 간 의사소통유형의 차이가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변량분석을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는 <표 IV-5>, <표 IV-6>에 제시하였다.

(1) 부의 교육정도에 따른 부-자녀 간 의사소통유형

<표 IV-5> 부의 교육정도에 따른 부-자녀 간 의사소통유형

구 분	교육정도	N	M	SD	F	p
부-개방형	전문대졸이상	263	31.57	8.54	1.700	.193
	고졸이하	309	30.72	6.97		
부-문제형	전문대졸이상	263	21.57	6.63	.020	.889
	고졸이하	309	21.49	6.22		

<표 IV-5>에서 아버지의 개방형 의사소통은 아버지의 교육정도가 전문대졸 이상(M=31.57)인 학생이 고등학교 졸업 이하(M=30.72)인 학생보다 높게 나타났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는 아니다. 아버지의 문제형 의사소통은 아버지의 교육정도가 전문대졸 이상(M=21.57)인 학생이 고등학교 졸업 이하(M=21.49)인 학생보다 약간 높게 나타났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는 아니다.

(2) 모의 교육정도에 따른 모-자녀 간 의사소통유형

<표 IV-6> 모의 교육정도에 따른 모-자녀 간 의사소통유형

구 분	교육정도	N	M	SD	F	p
모-개방형	전문대졸이상	195	35.82	7.83	1.594	.207
	고졸이하	370	34.92	8.16		
모-문제형	전문대졸이상	195	22.23	8.19	1.662	.198
	고졸이하	370	21.39	6.88		

<표 IV-6>에서 어머니의 개방형 의사소통은 어머니의 학력이 전문대졸 이상(M=35.82)인 학생이 고등학교 졸업 이하(M=34.92)인 학생보다 약간 높게 나타났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는 아니다. 어머니의 문제형 의사소통은 어머니의 학력이 전문대졸 이상(M=22.23)인 학생이 고등학교 졸업 이하(M=21.39)인 학생보다 높게 나타났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는 아니다. 부모의 교육정도에 따른 부모-자녀 간 의사소통유형은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정리다모(2001), 이희숙(2008)의 연구 결과와 일치하고 있으나, 부모-자녀 간 의사소통과 아버지의 학력은 부분적으로 관계가 있으나 어머니의 학력은 관계가 없다는 곽이연(2008)의 연구와 부분적으로 일치하고, 부모의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더 개방적인 의사소통을 한다는 연구 결과(이혜숙, 1998; 백승미, 2003; 국길숙, 2003; 박정자, 2005)와는 일치하지 않는다.

이 연구 결과와 선행연구를 종합해 볼 때 부모의 교육정도에 따른 부모-자녀 간 의사소통유형은 유의한 차이가 없다고 할 수 있다.

4) 가정의 경제수준에 따른 부모-자녀 간 의사소통유형

본래 질문지에서는 ‘매우 높은 편이다, 높은 편이다, 보통이다, 생활이 낮 편이다, 생활이 매우 낮은 편이다’ 5단계 척도로 제시하였으나 ‘높은 편, 보통, 낮은 편’ 세 집단으로 재편성한 후, 세 집단 간 차이검증을 실시하였다.

가정의 경제수준에 따른 부모-자녀 간 의사소통유형의 차이가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변량분석을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는 <표 IV-7>, <표 IV-8>에 제시하였다.

(1) 가정의 경제수준에 따른 부-자녀 간 의사소통유형

<표 IV-7> 가정의 경제수준에 따른 부-자녀 간 의사소통유형

구분	경제수준	N	M	SD	F	p
부-개방형	높은편	84	32.65	7.830	6.993***	.001
	보통	427	31.08	7.601		
	낮은편	52	27.69	6.847		
부-문제형	높은편	84	21.10	6.879	2.593	.076
	보통	427	21.47	6.357		
	낮은편	52	23.48	6.034		

*** p<.001

<표 IV-7>에서 가정의 경제수준에 따른 아버지의 개방형 의사소통은 경제수준이 높은 편(M=32.65), 보통(M=31.08), 낮은 편(M=27.69) 순으로 높게 나타났고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다(p<.001). 가정의 경제수준에 따른 아버지의 문제형 의사소통은 경제수준이 낮은 편(M=23.48), 보통(M=21.47), 높은 편(M=21.10) 순으로 높게 나타났으며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는 아니다.

(2) 가정의 경제수준에 따른 모-자녀 간 의사소통유형

<표 IV-8> 가정의 경제수준에 따른 모-자녀 간 의사소통유형

구 분	경제수준	N	M	SD	F	p
모-개방형	높은편	84	37.49	7.465	4.799**	.009
	보통	427	34.88	7.94		
	낮은편	52	33.71	8.183		
모-문제형	높은편	84	21.02	7.259	1.302	.273
	보통	427	21.77	7.352		
	낮은편	52	23.12	7.516		

** p<.01

<표 IV-8>에서 가정의 경제수준에 따른 어머니의 개방형 의사소통은 경제수준이 높은 편(M=37.49), 보통(M=34.88), 낮은 편(M=33.71) 순으로 높게 나타났고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다(p<.01). 가정의 경제수준에 따른 어머니와 문제형 의사소통은 경제수준이 낮은 편(M=23.12), 보통(M=21.77), 높은 편(M=21.02) 순으로 높게 나타났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는 아니다. 가정의 경제수준에 따른 부모-자녀 간 의사소통유형의 차이는 경제수준이 높을수록 부모-자녀 간 개방형 의사소통을 더 활발히 하고 부모-자녀 간 문제형 의사소통은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생활수준이 높을수록 부모와 개방형 의사소통을 하고 생활수준이 낮을수록 문제형 의사소통을 한다는 연구(김옥숙, 2001; 김성운, 2001; 안광자, 2004) 결과와 부분적으로 일치한다. 유원중(2002)의 연구에 따르면 가정의 경제수준이 높은 집단은 좋은 부모의 역할에 대한 지식과 방법에 대한 인지도가 높아 부모-자녀 간 의사소통이 활발한 반면, 가정 형편이 어려워질수록 부모가 아닌 타인이나, 학원에게 유아 양육을 맡기는 비율이 높다고 하였다. 가정의 경제수준이 높은 집단은 자녀들과 함께 하는 시간이 많아 의사소통도 활발히 이루어지고 자녀의 의견을 수용하는 정도도 높아서 부모와 개방형 의사소통을 많이 한다고 지각했을 것이라 사료된다.

이 연구 결과와 선행연구를 종합해 볼 때 경제수준이 높을수록 개방형 의사소통을 많이 한다고 할 수 있다.

5) 부모의 연령에 따른 부모-자녀 간 의사소통유형

본래 질문지에서는 부모의 연령을 직접 쓰도록 되어있는데 부모의 연령 평균을 기준으로 두 집단으로 재편성하여, 두 집단 간 차이검증을 실시하였다.

부모의 연령에 따른 부모-자녀 간 의사소통유형의 차이가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변량분석을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는 <표 IV-9>, <표 IV-10>에 제시하였다.

(1) 부의 연령에 따른 부-자녀 간 의사소통유형

<표 IV-9> 부의 연령에 따른 부-자녀 간 의사소통유형

구분	부의 연령	N	M	SD	F	p
부-개방형	36~46	326	31.12	8.139	.062	.803
	47~74	250	30.96	7.255		
부-문제형	36~46	326	21.57	6.674	.006	.937
	47~74	250	21.53	6.092		

<표 IV-9>에서 아버지의 개방형 의사소통의 경우 아버지의 연령이 36세~46세 (M=31.12)인 경우가 47세~74세 (M=30.96)보다 높게 나타났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는 아니다. 아버지의 문제형 의사소통의 경우 아버지의 연령이 36세~46세 (M=21.57)인 경우가 47세~74세 (M=21.53)보다 높게 나타났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는 아니다.

(2) 모의 연령에 따른 모-자녀 간 의사소통유형

<표 IV-10> 모의 연령에 따른 모-자녀 간 의사소통유형

구분	모의 연령	N	M	SD	F	p
모-개방형	32~43	466	35.05	8.167	1.581	.209
	44~58	108	36.13	7.486		
모-문제형	32~43	466	21.88	7.615	1.535	.216
	44~58	108	20.91	6.261		

<표 IV-10>에서 어머니의 개방형 의사소통의 경우 어머니의 연령이 32세~43세(M=35.05)인 경우가 44세~58세(M=36.13) 보다 낮게 나타났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는 아니다. 어머니의 문제형 의사소통의 경우 어머니의 연령이 32세~43세(M=21.88)인 경우가 44세~58세(M=20.91)보다 높게 나타났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는 아니다. 부모의 연령에 따른 부모-자녀 간 의사소통유형의 차이를 살펴본 결과는 부모의 연령이 부모-자녀 간 의사소통유형에 유의한 영향을 주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콕이연(2008)의 연구 결과와 일치한다.

이 연구 결과와 선행연구를 종합해 볼 때 부모의 연령에 따른 부모-자녀 간 의사소통유형은 유의한 차이가 없다고 할 수 있다.

2. 배경 변인에 따른 진로결정 자기효능감

가설2.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은 성별, 자녀의 학교성적, 부모의 교육수준, 가정의 경제수준, 부모의 연령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있을 것이다.

1) 자녀 성별에 따른 진로결정 자기효능감

자녀의 성별에 따른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의 차이가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변량분석을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는 <표 IV-11>에 제시하였다.

<표 IV-11> 자녀 성별에 따른 진로결정 자기효능감

구분	성별	N	M	SD	F	p
목표선택	남자	262	37.53	7.616	5.004*	.026
	여자	322	39.00	8.152		
미래계획	남자	262	15.07	3.196	7.965**	.005
	여자	322	14.26	3.604		
직업정보	남자	262	19.36	3.863	5.506*	.019
	여자	322	20.17	4.358		
문제해결	남자	261	9.34	2.284	15.200***	.000
	여자	322	10.10	2.397		
진로결정 자기효능감	남자	261	81.30	13.43	3.406	.065
	여자	322	82.53	15.30		

* $p < .05$, ** $p < .01$, *** $p < .001$

<표 IV-11>에서 목표선택은 여학생(M=39.00)이 남학생(M=37.53)보다 높으며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다($p < .05$). 미래계획은 남학생(M=15.07)이 여학생(M=14.26)보다 높으며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다($p < .01$). 직업정보는 여학생(M=20.17)이 남학생(M=19.36)보다 높으며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다($p < .05$). 문제해결은 여학생(M=10.10)이 남학생(M=9.34)보다 높으며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다($p < .001$). 전체적으로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은 여학생(M=82.53)이 남학생(M=81.30)보다 높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는 아니다.

이러한 결과는 전반적인 진로 자기 효능감은 성별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없다는 연구(강경균, 2006; 엄영순, 2008)들과 일치하고, 중학생의 경우 진로결정 자기효능감 총점과 하위영역 모두에서 남녀 간 의미 있는 성차가 나타나지 않는다는 이은경(2000)의 연구 결과와 부분적으로 일치한다. 여학생은 68%가 중학교 1학년 이전에 장래 직업에 대해 고려하기 시작하고, 남학생은 50%가 중학교

1학년 이전에 직업에 대해 고려하기 시작한다는 연구(임영주, 2001) 결과를 볼 때,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자신의 진로와 관련한 준비 정도와 진로성숙 정도가 높아서 목표선택, 직업정보, 문제해결 영역에서는 여학생 평균이 높은 것이라 사료된다. 미래계획 영역 여학생 평균이 남학생 평균보다 낮은 것은 여성이 자신의 미래에 대한 확신이나 자신의 진로에 대한 확신성과 결정성이 남성보다 그 수준이 낮기 때문(이은경, 2000)인 것으로 보인다.

이 연구 결과와 선행연구를 종합해 볼 때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은 성별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없다고 할 수 있다.

2) 학교성적에 따른 진로결정 자기효능감

자녀의 학교성적에 따른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의 차이가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변량분석을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는 <표 IV-12>에 제시하였다.

<표 IV-12> 성적에 따른 진로결정 자기효능감

구분	성적	N	M	SD	F	p
목표선택	80점이상	300	39.99	8.170	15.260***	.000
	60~79점	158	37.20	7.621		
	60점미만	124	35.77	6.875		
미래계획	80점이상	300	15.03	3.519	4.348*	.013
	60~79점	158	14.29	3.485		
	60점미만	124	14.09	3.142		
직업정보	80점이상	300	20.67	4.240	16.807***	.000
	60~79점	158	19.37	4.072		
	60점미만	124	18.25	3.544		
문제해결	80점이상	299	10.12	2.408	9.984***	.000
	60~79점	158	9.65	2.437		
	60점미만	124	9.02	2.036		
진로결정 자기효능감	80점이상	299	85.83	14.761	18.863***	.000
	60~79점	158	80.51	14.551		
	60점미만	124	77.12	11.788		

* $p < .05$, ** $p < .001$

<표 IV-12>에서 목표선택은 학교성적이 80점 이상(M=39.99)인 학생이 60점~79점(M=37.20)과 60점미만(M=35.77)인 학생보다 높으며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다($p < .001$). 미래계획은 80점 이상(M=15.03)인 학생이 60점~79점(M=14.29)과 60점미만(M=14.09)인 학생보다 높으며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다($p < .05$). 직업정보는 80점 이상(M=20.67)인 학생이 60점~79점(M=19.37)과 60점미만(M=18.25)인 학생보다 높으며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다($p < .001$). 문제해결은 80점 이상(M=10.12)인 학생이 60점~79점(M=9.65)과 60점미만(M=9.02)인 학생보다 높으며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다($p < .001$). 전체적으로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은 80점 이상(M=85.83)인 학생이 60점~79점(M=80.51)과 60점미만(M=77.12)인 학생보다 높으며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다($p < .001$).

이러한 결과는 학업성적이 높은 학생일수록 진로 자기효능감이 유의미한 차이가 크게 나타났다는 연구(박미애, 2002; 강경균, 2006; 김선연, 2008) 결과와 일치한다. 학업성취 수준이 높은 학생은 직업세계, 직업선택, 의사결정에 있어 보다 합리적으로 결정하고, 자신의 진로를 계획하고 준비하는 태도를 갖게 되어 개인의 진로성숙도 발달에 영향을 주고(오송남, 2003), 자신의 진로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의식할 뿐만 아니라 자신감을 갖고 진로를 탐색하기 때문에 성적이 높은 학생의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이 높은 것이라 사료된다. 한편, 학교성적이 상대적으로 낮은 학생들에게는 진로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여 미래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보게 함으로써 자신의 진로에 대한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이 연구 결과와 선행연구를 종합해볼 때 학업성적이 높은 학생일수록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이 높다고 할 수 있다.

3) 부모의 교육정도에 따른 진로결정 자기효능감

부모의 교육정도에 따른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의 차이가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변량분석을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는 <표 IV-13>, <표 IV-14>에 제시하였다.

(1) 부의 교육정도에 따른 진로결정 자기효능감

<표 IV-13> 부의 교육정도에 따른 진로결정 자기효능감

구분	교육정도	N	M	SD	F	p
목표선택	전문대졸이상	263	38.89	8.09	2.557	.110
	고졸이하	309	37.82	7.80		
미래계획	전문대졸이상	263	14.75	3.72	.824	.364
	고졸이하	309	14.48	3.21		
직업정보	전문대졸이상	263	20.11	4.34	2.836	.093
	고졸이하	309	19.52	4.02		
문제해결	전문대졸이상	263	10.03	2.45	6.235*	.013
	고졸이하	308	9.54	2.31		
진로결정 자기효능감	전문대졸이상	263	83.78	14.873	3.902*	.049
	고졸이하	308	81.37	14.181		

* p < .05

<표 IV-13>에서 목표선택은 전문대졸 이상(M=38.89)이 고졸 이하(M=37.82)보다 높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는 아니다. 미래계획은 전문대졸 이상(M=14.75)이 고졸 이하(M=14.48)보다 높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는 아니다. 직업정보는 전문대졸 이상(M=20.11)이 고졸 이하(M=19.52)보다 높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는 아니다. 문제해결은 전문대졸 이상(M=10.03)이 고졸 이하(M=9.54)보다 높으며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다(p < .05). 전체적으로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은 전문대졸 이상(M=83.78)이 고졸 이하(M=81.37)보다 높으며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다(p < .05).

(2) 모의 교육정도에 따른 진로결정 자기효능감

<표 IV-14> 모의 교육정도에 따른 진로결정 자기효능감

구 분	교육정도	N	M	SD	F	p
목표선택	전문대졸이상	195	39.16	8.38	3.367	.067
	고졸이하	370	37.87	7.67		
미래계획	전문대졸이상	195	15.01	3.59	3.962*	.047
	고졸이하	370	14.39	3.40		
직업정보	전문대졸이상	195	20.13	4.46	1.650	.200
	고졸이하	370	19.65	4.05		
문제해결	전문대졸이상	194	9.90	2.57	1.288	.257
	고졸이하	370	9.66	2.24		
진로결정 자기효능감	전문대졸이상	194	84.22	15.622	4.176*	.041
	고졸이하	370	81.58	13.978		

* p < .05

<표 IV-14>에서 목표선택은 전문대졸 이상(M=39.16)이 고졸이하 (M=37.87)보다 높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는 아니다. 미래계획은 전문대졸 이상(M= 15.01)이 고졸 이하(M=14.39)보다 높으며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다(p<.05). 직업정보는 전문대졸 이상(M=20.13)이 고졸 이하(M=19.65)보다 높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는 아니다. 문제해결은 전문대졸 이상(M=9.90)이 고졸 이하(M=9.66)보다 높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는 아니다. 전체적으로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은 전문대졸 이상(M=84.22)이 고졸 이하(M=81.58)보다 높으며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다(p<.05). 부의 교육수준은 진로결정 자기효능감 전체와 문제해결에 영향을 미치고 모의 교육수준은 진로결정 자기효능감 전체와 미래계획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아버지의 교육수준이 높은 경우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이 높다는 엄영순(2008)의 연구와 일치하며, 강경균(2006)이 중학생의 진로 자기 효능감

은 가정의 교육수준에 많은 영향을 받고 대학원 졸업 가장을 둔 중학생이 4년제 대학 졸업 이하의 교육수준을 가진 가장을 둔 중학생 보다 진로 자기 효능감이 더 높다는 연구와 일치한다. Shapiro와 Crowley(1982)는 높은 지위의 직업을 얻기 위해 필요한 자원과 교육 그리고 훈련 등이 부모의 교육수준에 의해 결정되기 때문에 부모의 교육수준이 청소년의 직업소망에 더 영향을 준다고 하였다. 교육수준이 높은 부모는 사회적 지위가 높은 직업을 갖기 위해 필요한 다양한 정보를 많이 갖고 있을 것이다. 이러한 부모의 영향으로 자녀들은 자신의 흥미와 적성에 맞는 다양한 직업을 탐색할 수 있는 기회가 더 많아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이 높은 것으로 보여진다.

이 연구 결과와 선행연구를 종합해 볼 때 부모의 교육수준 높을수록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이 높다고 할 수 있다.

4) 가정의 경제수준에 따른 진로결정 자기효능감

가정의 경제수준에 따른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의 차이가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변량분석을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는 <표 IV-15>에 제시하였다.

<표 IV-15> 가정의 경제수준에 따른 진로결정 자기효능감

구 분	경제수준	N	M	SD	F	p
목표선택	높은편	84	39.82	8.586	1.920	.148
	보통	427	38.00	7.560		
	낮은편	52	38.06	8.830		
미래계획	높은편	84	15.70	3.357	5.750**	.003
	보통	427	14.44	3.306		
	낮은편	52	13.98	4.180		
직업정보	높은편	84	20.77	4.232	3.437*	.033
	보통	427	19.64	4.025		
	낮은편	52	19.10	4.380		

구 분	경제수준	N	M	SD	F	p
문제해결	높은편	84	9.81	2.673	.391	.676
	보통	426	9.74	2.286		
	낮은편	52	9.46	2.339		
진로결정 자기효능감	높은편	84	86.11	14.738	3.594*	.028
	보통	426	81.83	13.934		
	낮은편	52	80.60	16.028		

* $p < .05$, ** $p < .01$

<표 IV-15>에서 목표선택은 높은 편(M=39.82)이 보통(M=38.00)과 낮은 편(M=38.06)보다 높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는 아니다. 미래계획은 높은 편(M=15.70)이 보통(M=14.44)과 낮은 편(M=13.89)보다 높으며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다($p < .01$). 직업정보는 높은 편(M=20.77)이 보통(M=19.64)과 낮은 편(M=19.10)보다 높으며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다($p < .05$). 문제해결은 높은 편(M=9.81)이 보통(M=9.74)과 낮은 편(M=9.46)보다 높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는 아니다. 전체적으로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은 높은 편(M=86.11)이 보통(M=81.83)과 낮은 편(M=80.60)보다 높으며,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다($p < .05$). 가정의 경제수준이 높을수록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경제적으로 풍족하다고 지각한 경우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이 높다는 엄영순(2008)의 연구와 일치한다. Bandura(1986)는 성취경험, 모방학습, 정서적인 각성, 언어적 설득이나 격려를 통해 자기효능감이 획득된다고 하였다. 경제수준이 높은 가정의 자녀들은 직업흥미검사를 받고, 전문가와 만남의 기회를 갖는 등 다양한 종류의 직업을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많이 제공받을 수 있어서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이 높게 형성되었을 것이라 사료된다. 빈곤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황미정(2008)의 연구에서 빈곤청소년들 중 진로지도를 받은 경험이 없는 청소년이 39.4%로 진로 경험 정도가 낮게 나타났고, 진로지도의 주체는 학교가 거의 대부분을 차지한다고 밝혔다. 청소년 진로 지도가 학교에서 이루어지면

가정이나 다른 기관에서 진로지도를 받지 못하는 청소년들도 진로지도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진로지도가 학교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러나 본 연구자의 현장 경험으로는 학교 교육과정상 진로지도 시간을 확보하기 어렵기 때문에 실제적인 진로지도에 어려움이 있다. 따라서 진로교육을 위한 진로지도 시간 확보가 시급하다고 본다. 그 다음으로 진로지도를 위한 교사 연수 기회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 진로지도를 위한 교사의 전문성을 신장시키면 학교에서의 진로교육이 더 효과적으로 이루어질 것이다.

이 연구 결과와 선행연구를 종합해 볼 때 가정의 경제수준이 높을수록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이 높다고 할 수 있다.

5) 부모의 연령에 따른 진로결정 자기효능감

부모의 연령에 따른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의 차이가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변량분석을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는 <표 IV-16>, <표 IV-17>에 제시하였다.

(1) 부의 연령에 따른 진로결정 자기효능감

<표 IV-16> 부의 연령에 따른 진로결정 자기효능감

구분	부의 연령	N	M	SD	F	p
목표선택	36~46	326	38.73	7.744	1.845	.175
	47~74	250	37.83	8.159		
미래계획	36~46	326	14.67	3.530	.096	.757
	47~74	250	14.58	3.324		
직업정보	36~46	326	19.97	4.303	1.209	.272
	47~74	250	19.58	3.986		
문제해결	36~46	325	9.64	2.346	2.431	.120
	47~74	250	9.95	2.405		
진로결정 자기효능감	36~46	325	83.02	14.554	.786	.376
	47~74	250	81.94	14.454		

<표 IV-16>에서 목표선택은 36~46세(M=38.73)가 47~74세(M=37.83)보다 높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는 아니다. 미래계획은 36~46세(M=14.67)가 47~74세(M=14.58)보다 높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는 아니다. 직업정보는 36~46세(M=19.97)가 47~74세(M=19.58)보다 높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는 아니다. 문제해결은 47~74세(M=9.95)가 36~46세(M=9.64)보다 높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는 아니다. 전체적으로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은 36~46세(M=83.02)가 47~74세(M=81.94)보다 높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는 아니다.

(2) 모의 연령에 따른 진로결정 자기효능감

<표 IV-17> 모의 연령에 따른 진로결정 자기효능감

구분	모의 연령	N	M	SD	F	p
목표선택	32~43	466	38.25	7.926	.748	.388
	44~58	108	38.98	7.961		
미래계획	32~43	466	14.59	3.474	.513	.474
	44~58	108	14.85	3.343		
직업정보	32~43	466	19.81	4.204	.020	.887
	44~58	108	19.87	4.058		
문제해결	32~43	465	9.74	2.379	.462	.497
	44~58	108	9.92	2.372		
진로결정 자기효능감	32~43	465	82.40	14.584	.624	.430
	44~58	108	83.62	14.205		

<표 IV-17>에서 목표선택은 44~58세(M=38.98)가 32~43세(M=38.25)보다 높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는 아니다. 미래계획은 44~58세(M=14.85)가 32~43세(M=14.59)보다 높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는 아니다. 직업정보는 44~58세(M=19.87)가 32~43세(M=19.81)보다 높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는 아니다. 문제해결은 44~58세(M=9.92)가 32~43세(M=9.74)

보다 높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는 아니다. 전체적으로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은 44~58세(M=83.62)가 32~43세(M=82.40)보다 높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는 아니다.

이 연구 결과를 볼 때 부모의 연령에 따른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은 차이가 없다고 할 수 있다.

3. 부모-자녀 간 의사소통유형과 진로결정 자기효능감과의 상관관계

가설3. 중학생이 지각한 부모-자녀 간 의사소통유형과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은 유의한 상관관계가 있을 것이다.

중학생이 지각한 부모-자녀 간 의사소통유형과 진로결정 자기효능감 간의 관계를 알아보기 위해 상관분석을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는 <표 IV-18>에 제시하였다.

<표 IV-18> 부모-자녀 간 의사소통유형과 진로결정 자기효능감과의 상관관계

구 분	의사소통유형				진로결정 자기효능감			
	부		모		목표 선택	미래 계획	직업 정보	문제 해결
	개방형	문제형	개방형	문제형				
의 사 소 통 유 형	개방형							
	문제형	-.676(**)						
부 모	개방형	.442(**)	-.308(**)					
	문제형	-.291(**)	.480(**)	-.672(**)				
목표선택	.289(**)	-.209(**)	.382(**)	-.268(**)				
미래계획	.304(**)	-.147(**)	.231(**)	-.074	.618(**)			
직업정보	.285(**)	-.182(**)	.313(**)	-.183(**)	.722(**)	.555(**)		
문제해결	.101(*)	-.049	.150(**)	-.117(**)	.195(**)	.115(**)	.308(**)	
진로결정 자기효능감	.328(**)	-.209(**)	.378(**)	-.236(**)	.933(**)	.754(**)	.864(**)	.386(**)

* p < .05, ** p < .01

<표 IV-18>에서 아버지의 의사소통유형이 개방형인 경우,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의 하위 영역인 목표선택($r=.289^{**}$), 미래계획($r=.304^{**}$), 직업정보($r=.285^{**}$), 문제해결($r=.101^{*}$)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정적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진로결정 자기효능감 총점($r=.328^{**}$)과도 통계적으로 유의한 정적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버지의 의사소통유형이 문제형인 경우,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의 하위 영역인 목표선택($r=-.209^{**}$), 미래계획($r=-.147^{**}$), 직업정보($r=-.182^{**}$), 문제해결($r=-.049$) 영역 중 문제해결을 제외한 영역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부적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어머니의 의사소통유형이 개방형인 경우,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의 하위 영역인 목표선택($r=.382^{**}$), 미래계획($r=.231^{**}$), 직업정보($r=.313^{**}$), 문제해결($r=.150^{**}$)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정적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진로결정 자기효능감 총점($r=.378^{**}$)과도 통계적으로 유의한 정적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어머니의 의사소통유형이 문제형인 경우, 진로결정 자기효

능감의 하위 영역인 목표선택($r=-.268^{**}$), 미래계획($r=-.074$), 직업정보($r=-.183^{**}$), 문제해결($r=-.117^{**}$) 영역 중 미래계획을 제외한 영역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부적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진로결정 자기효능감 전체($r=-.236^{**}$)와도 통계적으로 유의한 부적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적으로 진로결정 자기효능감과 부모-자녀 간 개방형 의사소통은 정적 상관관계가 있고($p<.01$), 진로결정 자기효능감과 부모-자녀 간 문제형 의사소통은 부적 상관관계가 있다($p<.01$). 부모-자녀 간 개방형 의사소통을 할수록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은 높고, 부모-자녀 간 문제형 의사소통을 할수록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은 낮게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부모-자녀 의사소통이 친근하고 수용적이며 책임감 있는 합리적인 의사소통을 하는 청소년이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이 높다고 한 백미화(2008)의 연구와 일치하며, 부모의 정서적 지지가 높을수록, 부모의 도구적 조력도가 높을수록 진로결정효능감이 높다고 한 엄영순(2008)의 연구와도 일치한다. 합리적인 진로의사결정을 하는 사람은 진로와 관련된 상황에 대한 탐색활동을 위해 가족이나 상담자 등 주변 사람들로 부터 조언을 구할 가능성이 높다(Bandura, 1986). 문지혜(1999)의 연구에 따르면 중학생은 진로문제를 부모님과 상담하고, 진로 결정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사람은 부모님이었다. 부모로부터 친근하고 수용적인 격려와 지지를 받은 청소년은 진로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얻을 것이다. 그리고 이 자신감은 목표선택과 직업정보 그리고 미래계획에 대해 원활한 의사결정을 내리도록 돕기 때문에 부모와 개방적 의사소통을 하는 청소년은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이 높게 나타나고 있다고 보아진다.

이 연구 결과와 선행연구를 종합해 볼 때 개방형 의사소통유형과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은 정적 상관관계가 있고, 문제형 의사소통유형과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은 부적 상관관계가 있다고 할 수 있다.

4. 부모-자녀 간 의사소통유형이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에 미치는 영향

가설4. 부모-자녀 간 의사소통유형은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을 유의하게 설명할 것이다.

중학생이 지각한 부모-자녀 간 의사소통유형이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에 미치는 영향력을 검증하기 위해 부모-자녀 간 의사소통유형의 하위영역을 독립변수로 하고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을 종속변수로 하여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는 <표 IV-19>에 제시하였다.

<표 IV-19> 부모-자녀 간 의사소통유형이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에 미치는 영향

종속변수	R	R ²	수정된 R ²	SS	F	p	유의한 독립변인
목표선택	.404	.164	.161	7.277	56.794***	.000	부-개방형 모-개방형
미래계획	.339	.115	.111	3.251	25.180***	.000	부-개방형 모-개방형 모-문제형
직업정보	.353	.124	.121	3.899	41.287***	.000	부-개방형 모-개방형
문제해결	.150	.023	.021	2.351	13.437***	.000	부-개방형 모-개방형
진로결정 자기효능감	.418	.175	.172	13.217	61.491***	.000	부-개방형 모-개방형

*** p<.001

<표 IV-19>에서 부모-자녀 간 의사소통유형 중 부-개방형과 모-개방형의 의사소통유형이 목표선택 영역을 설명하는 양은 16.1%로 나타났다. 부모-자녀 간 의사소통유형 중 부-개방형과 모-개방형 그리고 모-문제형 의사소통유형이 미래계획 영역을 설명하는 양은 11.1%로 나타났다. 부모-자녀 간 의사소통유형 중

부-개방형과 모-개방형 의사소통유형이 직업정보 영역을 설명하는 양은 12.1%로 나타났다. 부모-자녀 간 의사소통유형 중 부-개방형과 모-개방형 의사소통유형이 문제해결 영역을 설명하는 양은 2.1%로 나타났다. 부모-자녀 간 의사소통유형 중 부-개방형과 모-개방형 의사소통유형이 진로결정 자기효능감 전체를 설명하는 양은 17.2%로 나타났다.

부모-자녀 간 의사소통유형 중 부-개방형과 모-개방형 의사소통유형이 진로결정 자기효능감 전체를 설명하는 양은 17.2%이고,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의 하위영역을 설명하는 양은 목표선택(16.1%), 직업정보(12.1%), 미래계획(11.1%), 문제해결(2.1%) 순으로 나타났다.

이 연구에서 특이한 점은 의사소통유형이 문제해결 영역을 설명하는 양이 매우 낮다는 점이다. 임영주(2001)의 연구에 따르면 여학생의 68%가 중학교 1학년 이전에 장래 직업에 대해 고려하기 시작하고, 남학생은 50%가 중학교 1학년 이전에 직업에 대해 고려하기 시작한다고 하였다. 진로탐색 단계에 있는 중학생은 관심 있는 직업을 찾아내고 그 직업의 조건들을 구체적으로 탐색할 수 있다는 자신감에 해당하는 직업정보 영역과 자신의 학업이나 진로를 자신 있게 결정할 수 있다는 자신감에 해당하는 목표선택 영역 그리고 진학, 취업 등에 대한 계획을 세우고 실천할 수 있다는 스스로에 대한 믿음인 미래계획 영역은 많이 발달하고 있다. 반면, 진로선택에 문제가 생기면 스스로가 헤쳐 나갈 수 있을 것이라는 믿음인 문제해결 영역은 아직 발달하지 않았기 때문에 문제해결 영역이 낮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진로결정 자기효능감 질문지에 '선택한 진로가 만족스럽지 않으면 바꿀 수 있다'와 같이 문제해결 방법으로 직업 변경만을 제시하고 있다. 단순히 진로를 변경하는 것으로는 진로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다양한 문제를 해결하기에는 충분하지 않다. 이 또한 문제해결 영역이 낮은 원인일 것이다.

V. 요약, 결론 및 제언

1. 요약

이 연구는 중학생이 지각한 부모-자녀 간 의사소통유형과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의 관계를 밝히는 데 그 목적이 있으며 이를 위해 다음과 같이 연구문제를 설정하였다.

문제 1. 중학생이 지각한 부모-자녀 간 의사소통유형은 배경변인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있는가?

문제 2.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은 배경변인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있는가?

문제 3. 중학생이 지각한 부모-자녀 간 의사소통유형과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은 어떠한 상관관계가 있는가?

문제 4.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에 대한 의사소통유형의 영향력은 어떠한가?

이러한 연구문제를 구명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연구 가설을 설정하였다.

가설1. 중학생이 지각한 부모-자녀 간 의사소통유형은 성별, 성적, 부모의 교육수준, 가정의 경제수준, 부모의 연령에 따라 차이가 있을 것이다.

가설2.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은 성별, 성적, 부모의 교육수준, 가정의 경제수준, 부모의 연령에 따라 차이가 있을 것이다.

가설3. 중학생이 지각한 부모-자녀 간 의사소통유형과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은 유의한 상관관계가 있을 것이다.

가설4. 의사소통유형은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을 유의하게 설명할 것이다.

위의 가설을 검증하기 위하여 제주도내 중학교 3학년 학생 584명을 대상으로

부모-자녀 간 의사소통유형과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에 대해 질문지 조사를 실시하였다.

의사소통유형 측정 도구로는 Barnes와 Olson(1985)이 제작한 부모-자녀 간 의사소통 척도(Parent-Adolescent Communication Inventory)중 청소년 자녀용 질문지를 김윤희(1990)가 변안한 검사지를 사용하여, 부-개방형, 부-문제형, 모-개방형, 모-문제형의 4개 하위영역에 대해 살펴보았다. 진로결정 자기효능감 측정 도구로는 Taylor와 Betz(1983)가 개발한 Career Decision-Making Self-Efficacy Scale 단축형(CDMSES-SF)을 이은경(2000)이 중·고·대학생을 대상으로 타당도와 신뢰도를 검증 받은 검사지를 사용하여, 목표선택, 직업정보, 문제해결, 미래계획의 4개 하위영역에 대해 살펴보았다.

수집된 자료는 SPSS WIN 12.0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배경변인에 따른 부모-자녀 간 의사소통유형과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의 차이를 알아보기 위해 변량분석을 실시하였고, 부모-자녀 간 의사소통유형과 진로결정 자기효능감과의 관계를 알아보기 위해 상관분석을 실시하였고,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에 대한 의사소통유형의 영향력을 알아보기 위해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이와 같은 과정을 통하여 얻어진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배경 변인에 따른 부모-자녀 간 의사소통유형은 여학생은 어머니와 개방형 의사소통을 더 많이 하고, 남학생은 어머니와 문제형 의사소통을 더 많이 하며, 자녀의 성적이 높을수록, 경제수준이 높을수록 부모-자녀 간 개방형 의사소통을 더 활발히 한다.

둘째, 배경 변인에 따른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은 성별에 따른 차이는 없으나, 자녀의 학교성적이 높을수록, 부모의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가정의 경제수준이 높을수록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이 높다.

셋째, 중학생 자녀는 부모와 개방형 의사소통을 할수록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이 높고, 문제형 의사소통을 할수록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이 낮다.

넷째, 부모-자녀 간 의사소통유형 중 부모-개방형 의사소통유형이 진로결정 자기효능감 전체를 설명하는 양은 17.2%이고,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의 하위영역을 설명하는 양은 목표선택, 직업정보, 미래계획, 문제해결 순으로 나타났다.

이상을 종합하면 부모와 개방형 의사소통을 한다고 지각하는 중학생은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이 높고, 문제형 의사소통을 한다고 지각하는 학생은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이 낮다. 특히, 부모의 개방형 의사소통이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을 설명하는 양은 17.2%로 부모-자녀 간 개방형 의사소통이 자녀의 진로결정 자기효능감 발달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임을 알 수 있다.

2. 결론

부모-자녀 간 의사소통유형과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의 관계에 대한 연구의 결과를 토대로 얻어진 결론은 다음과 같다.

첫째, 배경 변인에 따른 부모-자녀 간 의사소통유형은 여학생은 어머니와 개방형 의사소통을 더 많이 하고, 남학생은 어머니와 문제형 의사소통을 더 많이 하며, 자녀의 성적이 높을수록, 경제수준이 높을수록 부모-자녀 간 개방형 의사소통을 더 활발히 한다.

둘째, 배경 변인에 따른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은 성별에 따른 차이는 없으나, 자녀의 학교성적이 높을수록, 부모의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가정의 경제수준이 높을수록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이 높다.

셋째, 중학생 자녀는 부모와 개방형 의사소통을 할수록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이 높고, 문제형 의사소통을 할수록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이 낮다.

넷째, 부모-자녀 간 의사소통유형 중 부모-개방형 의사소통유형이 진로결정 자기효능감 전체를 설명하는 양은 17.2%이고,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의 하위영역을 설명하는 양은 목표선택, 직업정보, 미래계획, 문제해결 순으로 나타났다.

3. 제언

이 연구의 결과를 토대로 제언을 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부모와 개방형 의사소통을 한다고 지각하는 중학생은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이 높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부모-자녀 간 의사소통에 어려움을 경험하는 부모와 자녀를 대상으로 하는 개방형 의사소통 증진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적용하는 연구가 필요하다.

둘째, 이 연구에서는 중학생의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에 미치는 개인관련 변인만을 연구하였으나, 이은경(2000)의 연구에 따르면 친구와의 애착안정성이 개인의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에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고, 엄영순(2008)도 교우관계에 대한 적응이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에 가장 큰 영향력을 미친다고 하였다. 후속 연구에서는 친구관련 변인이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에 미치는 영향을 밝힌다면 중학생의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을 높이는 방안에 대한 더 정확한 정보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셋째, 홍설(2006)의 연구에 따르면 진로집단상담 프로그램이 중학생의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을 증진시키는 데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 진로결정 자기효능감 향상 프로그램이 개발되지 않았기 때문에 진로결정 자기효능감 증진을 위해 적용하는 프로그램들이 대부분 진로탐색 프로그램이나 진로집단상담 프로그램을 이용하고 있다. 따라서 진로결정 자기효능감 향상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것이 시급하다.

참 고 문 헌

- 강경균(2006). **중학생의 진로 자기효능감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한국교원대학교 대학원.
- 강정은(2008). **진로장벽, 심리적 독립,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이 진로결정수준 및 진로준비행동에 미치는 영향 : 4년제 여자대학생과 전문대 여자대학생의 비교**. 석사학위논문,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 곽이연(2008). **초등학생의 부모-자녀 간 의사소통유형과 자아존중감과의 관계**. 석사학위논문, 한남대학교 교육대학원.
- 구자현(2005). **중학생의 부모-자녀 간 의사소통유형과 자아존중감 및 진로성숙도와의 관계**. 석사학위논문, 원광대학교 교육대학원.
- 국길숙(2003). **청소년이 지각한 부모-자녀 간 의사소통과 청소년의 자아존중감과의 관계**. 석사학위논문, 가톨릭대학교 대학원.
- 김경원(1998). **청소년이 지각한 부모-자녀 간 의사소통 유형과 청소년의 자아존중감 및 사회성 발달과의 관계**. 석사학위논문, 명지대학교 교육대학원.
- 김근화(2003). **중학생의 부모-자녀 간 의사소통과 자아존중감**. 석사학위논문, 전남대학교 교육대학원.
- 김미숙(2007). **부모-자녀 의사소통과 의사결정유형이 진로성숙도에 미치는 영향**. 석사학위논문, 대구대학교 교육대학원.
- 김봉환, 김병석, 정철영(2003). **학교진로상담**. 서울: 학지사.
- 김선연(2008). **중·고등학생의 사회지능, 진로자기효능감과 학교적응간의 관계 연구**. 박사학위논문, 관동대학교 대학원.
- 김성윤(2001). **중학생의 자아개념유형과 부모-자녀의 의사소통유형의 관계**. 석사학위논문, 연세대학교 대학원.
- 김수리(2005). **부모지지, 진로결정 자기효능감 및 역기능적 진로사고가 청소년의 진로발달에 미치는 영향**. 박사학위논문, 홍익대학교 대학원.
- 김순옥(1991). **10대 자녀의 부모에 대한 의사소통 개방성과 그 귀인 연구**. 박사학위논문, 동국대학교 대학원.

- 김애숙(2008). **중학생이 지각한 부모-자녀 간 의사소통유형과 진로의사결정과
의 관계**. 석사학위논문, 대진대학교 교육대학원.
- 김옥숙(2001). **부모와의 의사소통유형과 고등학생의 자아존중감 및 진로성숙도
의 관계**. 석사학위논문, 서강대학교 교육대학원.
- 김윤희(1990). **부부관계·부모-자녀 의사소통·가족기능과 청소년자녀 비행과
의 관계 연구**. 박사학위논문,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 김정희(1987). **어머니와 자녀간의 커뮤니케이션 형태와 자녀의 자아개념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숙명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 문지혜(1999). **중학생의 진로의식과 진로지도의 필요성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
논문, 전남대학교 교육대학원.
- 박미애(2002). **중학생의 진로에 대한 태도성숙과 자아효능감간의 관계**. 석사학
위논문, 경성대학교 교육대학원.
- 박정미(2004). **청소년이 지각한 부모 의사소통유형 및 부모-자녀 간 의사소통과
심리적 적응의 관계 : 전북지역 고등학생을 중심으로**. 석사학위논문, 전북
대학교 교육대학원.
- 박정자(2005). **부모-청소년 자녀간의 의사소통유형과 청소년의 성격과의 관계
연구**. 석사학위논문, 안양대학교 경영행정대학원.
- 백남근(2001). **부모와의 의사소통유형과 자기효능감 및 진로성숙도와의 관계**.
석사학위논문, 충남대학교 교육대학원.
- 백미숙(2000). **청소년이 지각한 부모와의 갈등**. 석사학위논문, 전남대학교 교육
대학원.
- 백미화(2008). **부모-자녀 의사소통유형 및 부모의 양육태도 변인과 진로결정
자기효능감 및 진로태도성숙 변인간의 관계**. 박사학위논문, 충남대학교
대학원.
- 백승미(2003). **부모-자녀간의 의사소통과 아동의 다중지능과의 관계**. 석사학위
논문, 서울교육대학교 교육대학원.
- 설재풍(2001). **중학생의 진로의사결정유형과 진로의식발달과의 관계**. 석사학위
논문, 건국대학교 교육대학원.
- 손충기 외 공저(2007). **내가 하는 통계분석 SPSS-DOS에서 WINDOW 버전**

14.0까지-. 서울 : 학지사.

- 송성자(1985). 한국 부부간의 의사소통유형과 가족문제에 관한 연구 : 의사소통 가족치료 이론을 중심으로. 박사학위논문, 송실대학교 대학원.
- 신주연(2006). 부모-자녀 간 의사소통유형과 중학생의 자아존중감 및 진로성숙도의 관계. 석사학위논문, 국민대학교 교육대학원.
- 심경보(2008). 중·고등학교의 부모-자녀 간 의사소통유형이 진로의식성숙과 진로방벽에 미치는 영향. 석사학위논문, 강남대학교 교육대학원.
- 안광자(2004). 고등학생이 지각한 부모-자녀 간 의사소통유형과 진로의사결정 유형과의 관계. 석사학위논문, 광운대학교 교육대학원.
- 양민철(2005). 부모-자녀 간 의사소통유형과 청소년의 자아상대와의 관계. 석사학위논문, 제주대학교 교육대학원.
- 양승민(2003). 대학생이 지각한 가족 상호작용 양식과 진로결정 자기효능감간의 관계. 석사학위논문, 연세대학교 대학원.
- 엄영순(2008). 중학생의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에 미치는 부모지지, 학교생활적응의 영향. 석사학위논문, 상명대학교 교육대학원.
- 오송남(2003). 자아존중감 및 학업성취도가 중학생의 진로성숙도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서남대학교 교육대학원.
- 유미정(2008). 진로장벽,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이 진로준비행동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 전문대학 비서학 전공생을 중심으로. 석사학위논문,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 유원중(2002). 부모와 자녀간의 갈등 해결방안에 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단국대학교 행정법무대학원.
- 윤미애(2003). 아버지-자녀의 의사소통유형과 자기효능감에 대한 연구 : 초등학생을 중심으로. 석사학위논문, 경희대학교 교육대학원.
- 이기학(1997). 고등학생의 진로태도 성숙과 심리적 변인들과의 관계. 박사학위논문, 연세대학교 대학원.
- 이기학, 이학주(2000). 대학생의 진로태도 성숙 정도에 대한 예언 변인으로서의 자기효능감 효과 검증에 대한 연구. *한국심리학회지*, Vol. 12, No.1 pp.127-136.

- 이성민(2008). **중학생이 지각한 부모와의 의사소통과 자기효능감 및 불안**. 석사학위논문, 전북대학교 교육대학원.
- 이성식(2007). **여대생이 인식한 진로장벽과 진로결정 자기효능감 및 진로결정수준의 인과모형**. 박사학위논문, 서울대학교 대학원.
- 이은경(2000). **자기효능감이 진로발달에 미치는 영향**. 박사학위논문,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 이재승(2004). **청소년이 지각한 부모와의 의사소통유형과 인생태도에 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한남대학교 사회문화과학대학원.
- 이정우, 김규원(1989). **청소년기 자녀가 지각한 어머니와의 커뮤니케이션 유형 및 만족도 연구**. *대한가정학회지*, 제27권 3호, pp.147-159.
- 이태정(2003). **몰입 경험이 진로 태도 성숙 및 진로결정 효능감에 미치는 영향**. 박사학위논문, 홍익대학교 대학원.
- 이현주(2000). **대학생의 진로결정 수준에 따른 인지양식 차이**. *교육학연구*, Vol. 38 No.1 pp.235-257.
- 이혜숙(1998). **자녀가 지각한 부모의 의사소통유형과 자아존중감과의 관계 연구 : 고등학생을 중심으로**. 석사학위논문, 동국대학교 교육대학원.
- 이희숙(2008). **부모-자녀 간 의사소통유형에 따른 자아존중감 및 학교생활적응의 차이**. 석사학위논문, 전남대학교 교육대학원.
- 임영주(2001). **중학교 학생의 진로 의식에 관한 조사 연구 : 경기도내 중학교 3학년 학생을 중심으로**. 석사학위논문, 경희대학교 교육대학원.
- 장호선(1986). **부모자녀간의 개방적 의사소통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성심여자대학교 대학원.
- 장휘숙(1990). **부모에 대한 심리적 거리지각의 연령에 따른 변화**. *사회과학연구*, Vol. 1, No.1 pp.115-131.
- 전병화(2008). **고등학생의 자기분화가 진로결정 자기 효능감 및 진로결정 수준에 미치는 영향**. 석사학위논문, 경남대학교 교육대학원.
- 정리다모(2001). **부모-자녀간의 언어상호작용과 자녀의 감성지능의 관계**. 석사학위논문, 공주대학교 대학원.
- 정명희(1989). **부모-자녀 간의의사소통유형과 청소년 문제행동과의 관계연구**.

- 고등학생을 중심으로. 석사학위논문, 성심여자대학교 대학원.
- 정미숙(2007). 부모-자녀간의 의사소통유형과 자아존중감 및 진로성숙도의 관계 : 실업계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석사학위논문, 성균관대학교 교육대학원.
- 조민희(2007). 부모-자녀 의사소통방식이 자녀의 자아존중감, 대학생활적응, 진로준비행동에 미치는 영향. 석사학위논문, 한양대학교 교육대학원.
- 조은경(1992). 부모·청소년 자녀간의 대인거리·심리적거리·의사소통이 가족의 응집성과 적응력에 미치는 영향. 박사학위논문, 한양대학교 대학원.
- 주장훈(2006). 중학교 학생·교사의 진로인식 및 진로교육 실태 분석. 석사학위논문, 강원대학교 교육대학원.
- 최인경(2001). 부모-자녀 간 의사소통에 따른 청소년의 자아존중감. 석사학위논문, 전남대학교 교육대학원.
- 최인덕(2003). 중학생 부모의 의사소통유형과 자기존중감의 관계. 석사학위논문, 우석대학교 교육대학원.
- 추은경(2002). 중학생 자녀가 인지한 부모와의 의사소통이 학업성취에 미치는 영향. 석사학위논문, 조선대학교 교육대학원.
- 홍설(2006). 진로집단상담 프로그램이 중학생의 성별에 따라 진로성숙, 진로의사결정능력,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에 미치는 영향. 석사학위논문, 계명대학교 교육대학원.
- 황미정(2008). 빈곤청소년 진로준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 개인적 변인, 환경적 변인, 진로관련 변인을 중심으로. 석사학위논문, 가톨릭대학교 사회복지대학원.
- 황지영(2007). 대학생의 진로결정 효능감과 진로장벽이 진로결정수준에 미치는 영향. 석사학위논문, 계명대학교 대학원.
- Bandura, A. (1977). Self-efficacy: Toward a unifying theory of behavioral change. *Psychological Review*, 84, 184-211.
- Bandura, A. (1986). Social foundation of thought and theory of behavioral changes, *Psychological Review*, 84, 191-215.
- Barnes, H. L. & Olson. D. H(1982). Parent-Adolescent Communication Family Inventories. *Family Social Science*. University of Minnesota.

- Barnes, L. Howard & Olson. H.(1985). Parent-Adolescent Communication & the Circumplex Model, *Child Development*, 56, 438-447.
- Bernstein, B. A.(1971). Class, codes and control(vol.1) *Theoretical studies towards the sociology of language*. 1. London: Routledge & Kegan Poul.
- Betz, N. E. & Hackette, G.(1981). The relationship of career related self-efficacy expectations to perceived career option in college woman and men.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28, 399-410.
- Gordon, T.(1975). *P.E.T. (Parents Effectiveness Training)*. New York. : New American Library.
- Gross, I.H, E. W. Crandall, and M. J. Knoll,(1980). *Management for modern Families(4th ed.)*.New Jersey :Prentice Hall Inc.
- Hackett, G., & Betz, N. E.(1981). A self-efficacy approach to the career development of women. *Journal of Vocational Behavior*, 18, 326-339.
- Hawkin, J. L. & Ray. d. L.(1977), Marital Communication Style and Social Class, *Journal of Marriage and Family*.
- Lent, R. W., Brown, S. D., & Larkin, K. C.(1984). Relation of self-efficacy expectations to academic achievement and persistence,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31, 356-363.
- Paolucci, B.(1977). Home management a family resource. Paper Presented annual spring weekend. College of Home Economics. Pennsylvania State University, April. 1966.
- Shapiro, D., & Crowley, J. E. (1982). Aspirations and expectations of youth in the United States, part 2 : Employment activity. *Youth and Society*, 14, pp. 33-58.
- Taylor, K, M., & Betz, N. E.(1983). Applications of self-efficacy theory to the understanding and treatment of career indecision. *Journal of Vocational Behavior*, 22, 63-81.

<Abstract>

Relations of Communication Type between Parents and Adolescents, and Career Decision-Making Self-Efficacy

Major in Counseling Psychology,
Graduate School of Education, Jeju National University, Jeju Korea

Kang Myeong Sim

Supervised by Professor, Park Jeong Hwan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clarify relations of communication type between parents and adolescents, and Career Decision-Making Self-Efficacy. In order to achieve this purpose, following subjects are assigned.

First, What are differences in communication type between parents and their adolescents depending on SES of parents?

Second, What are differences in Career Decision-Making Self-Efficacy depending on SES of parents?

Third, What relationship exist between communication type of parents and their adolescents and Career Decision-Making Self-Efficacy?

Fourth, How does communication type affect Career Decision-Making

* A thesis submitted to the Committee of the Graduate School of Education, Jeju National University in partial fulfillment of requirements for the degree of Master of Education in August, 2009.

Self-Efficacy?

In order to these subjects, a survey by questionnaires was carried out for communication type between parents and their adolescents and Career Decision-Making Self-Efficacy targeting 584 middle school students in Jeju province.

For measurement tool, a questionnaire for adolescents that Kim Yun Hee(1990) interpreted scales for measuring communication type between parents and their adolescents which was produced by Barnes and Olson (1985) was used. For measuring Career Decision-Making Self-Efficacy the summarized version of Career Decision-Making Self-Efficacy Scale developed by Taylor and Betz(1983) was used, and that version was rationalized by Lee Eun Kyeong(2000).

The collected data was analyzed based on variable factors using SPSS WIN 12.0 program to measure communication type between parents and their adolescents and Career Decision-Making Self-Efficacy depending on SES of parents. And correlational analysis was carried out to find communication types between parents and their adolescents and their relationship with Career Decision-Making Self-Efficacy and multi-regression analysis was carried out to measure how communication type affect Career Decision-Making Self-Efficacy.

The findings of this study indicated the followings;

First, for communication types between parents and their adolescents depending on SES of parents, female students have more open communication with their mothers whereas male students have more problematic communication with their mothers. The better achievements students have in school and the higher economic level they have, there are more active open communications with their parents.

Second, although there isn't much difference between male and female student in Career Decision-Making Self-Efficacy depending on SES of parents, but the better achievements students have in school, and the higher economic level their parents have, their Career Decision-Making Self-Efficacy were high.

Third, the more adolescents have communications with their parents, the higher their Career Decision-Making Self-Efficacy for, and the more they have problematic communication, the less they have Career Decision-Making Self-Efficacy.

Fourth, percentage by which parent-open communication type among communication types between parents and their adolescents affect whole Career Decision-Making Self-Efficacy was 17.2%, and those of lower parts of Career Decision-Making Self-Efficacy was found to be aligned as goal setting, job information, future plan and problem solving in their order.

To summarize what have been mentioned above, middle school student who has open communication with parents are found to have higher Career Decision-Making Self-Efficacy, and those who have problematic communication are lower Career Decision-Making Self-Efficacy. Especially, percentage by which parent's open communication affect Career Decision-Making Self-Efficacy is 17.2%, which indicates that open communication between parent and students largely affects advancement of Career Decision-Making Self-Efficacy.

부 록

<부록1>

1. 부모-자녀 간 의사소통유형 검사
2. 진로결정 자기효능감 검사



<부록1>

설 문 지

안녕하십니까?

여러분의 귀중한 시간을 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검사지는 여러분이 부모님과의 대화에 대하여 어떻게 느끼고 있는지와
진로 결정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을 알아보기 위해 만들어진 것입니다.

응답해 주신 결과는 연구의 기초 자료로 활용될 것이며 연구 이외의 다른
목적으로는 결코 사용되지 않을 것임을 약속드리겠습니다. 빠진 문항이 있
을 경우 애써 작성해주신 귀한 자료를 사용하지 못하게 될 수도 있으므로
가능한 한 문항도 빠짐없이 응답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또한 응답한 사람의 비밀은 절대 보장될 것입니다.

각 문항은 정답이 있는 것이 아니므로 문항을 읽으신 후 자신에게 가장
적합하다고 생각되는 번호에 ○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성실한 답변이 연구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2008. 12.

제주대학교 교육대학원

상담심리 전공 강 명 심

※ 먼저 다음 사항을 기록하여 주십시오.

1. 나의 성별은?

- ① 남자 ② 여자

2. 나의 가족 관계는?

- ① 아버지와 어머니가 모두 계신다. ② 아버지만 계신다.
③ 어머니만 계신다. ④ 두 분 다 안 계신다.

3. 부모님의 교육정도는?

- 1) 아버지 - () 2) 어머니 - ()
① 대학원 이상 ② 대학교 졸업 ③ 전문대 졸업
④ 고등학교 졸업 ⑤ 중학교 졸업 이하

4. 우리 집은 경제수준이?

- ① 매우 높은 편이다. ② 높은 편이다. ③ 보통이다.
④ 낮은 편이다. ⑤ 매우 낮은 편이다.

5. 부모님의 연령은?

- 1) 아버지 - ()세 2) 어머니 - ()세

6. 여러분은 몇 번째 자녀입니까? (남 녀 중 째)

7. 나의 지난 학기 성적은?

- ① 80점 이상 ② 60~79점 ③ 60점 미만
-

※ 다음 문항은 부모님과의 의사소통에 관한 것입니다.

다음 문항을 읽고 평소에 아버지나 어머니와의 대화에서 느꼈던 것을 솔직하게 답해주시기 바랍니다. 자신에게 해당하는 부분에 ○표를 하면 됩니다.

아버지와의 의사소통		1. 전혀 그렇지 않다 2. 그렇지 않다 3. 보통이다 4. 그렇다 5. 항상 그렇다				
1	나의 소신을 아버지와 거리낌 없이 의논할 수 있다.	①	②	③	④	⑤
2	아버지가 나에게 하시는 말씀은 가끔 믿기가 어렵다.	①	②	③	④	⑤
3	아버지는 늘 내 말을 귀담아 들어주신다.	①	②	③	④	⑤
4	내가 원하는 바를 아버지께 부탁드리려면 겁이 난다.	①	②	③	④	⑤
5	아버지는 내가 말하지 않아도 나의 감정이 어떤지 잘 아신다.	①	②	③	④	⑤
6	아버지는 나보고 어떤 말을 하느니 차라리 입 다물고 가만히 있으라고 하신다.	①	②	③	④	⑤
7	나는 아버지와 대화를 하면 만족스럽다.	①	②	③	④	⑤
8	우리에게 어떤 문제가 생기면 나는 아버지께 차라리 아무 말씀 말고 가만히 계시라고 한다.	①	②	③	④	⑤
9	나에게 무슨 일이 있더라도 나는 아버지께 모두 말씀드릴 수 있다.	①	②	③	④	⑤
10	아버지께 말씀드리려면 조심스럽고 어렵다.	①	②	③	④	⑤
11	마음 놓고 아버지께 어릿광을 부린다.	①	②	③	④	⑤
12	아버지와 대화를 나눌 때 차라리 말을 안 하는 것이 더욱 마음 편하다.	①	②	③	④	⑤
13	내 질문에 대해 아버지는 솔직하게 대답을 해 주신다.	①	②	③	④	⑤
14	나에게는 아버지와 의논할 수 없는 비밀이 많다.	①	②	③	④	⑤
15	아버지는 내 의견을 이해 해주시려고 애쓰신다.	①	②	③	④	⑤
16	나는 아버지의 잔소리 때문에 귀찮다.	①	②	③	④	⑤
17	나는 아버지와 여러 가지 문제에 관해 의논을 잘한다.	①	②	③	④	⑤
18	아버지는 나로 인해 화가 나시면 창피를 주신다.	①	②	③	④	⑤
19	나의 느낌을 아버지에게 솔직하게 잘 털어놓는다.	①	②	③	④	⑤
20	무슨 일에 대한 내 진심을 아버지께 그대로 말씀드릴 수 없다.	①	②	③	④	⑤

어머니와의 의사소통		1. 전혀 그렇지않다 2. 그렇지 않다 3. 보통이다 4. 그렇다 5. 항상 그렇다				
1	나의 소신을 어머니와 거리낌 없이 의논할 수 있다.	①	②	③	④	⑤
2	어머니가 나에게 하시는 말씀은 가끔 믿기가 어렵다.	①	②	③	④	⑤
3	어머니는 늘 내 말을 귀담아 들어주신다.	①	②	③	④	⑤
4	내가 원하는 바를 어머니께 부탁드리려면 겁이 난다.	①	②	③	④	⑤
5	어머니는 내가 말하지 않아도 나의 감정이 어떤지 잘 아신다.	①	②	③	④	⑤
6	어머니는 나보고 어떤 말을 하느니 차라리 입 다물고 가만히 있으라고 하신다.	①	②	③	④	⑤
7	나는 어머니와 대화를 하면 만족스럽다.	①	②	③	④	⑤
8	우리에게 어떤 문제가 생기면 나는 어머니께 차라리 아무 말씀 말고 가만히 계시라고 한다.	①	②	③	④	⑤
9	나에게 무슨 일이 있더라도 나는 어머니께 모두 말씀드릴 수 있다.	①	②	③	④	⑤
10	어머니께 말씀드리려면 조심스럽고 어렵다.	①	②	③	④	⑤
11	마음 놓고 어머니께 어릿광을 부린다.	①	②	③	④	⑤
12	어머니와 대화를 나눌 때 차라리 말을 안 하는 것이 더욱 마음 편하다.	①	②	③	④	⑤
13	내 질문에 대해 어머니는 솔직하게 대답을 해 주신다.	①	②	③	④	⑤
14	나에게는 어머니와 의논할 수 없는 비밀이 많다.	①	②	③	④	⑤
15	어머니는 내 의견을 이해 해주시려고 애쓰신다.	①	②	③	④	⑤
16	나는 어머니의 잔소리 때문에 귀찮다.	①	②	③	④	⑤
17	나는 어머니와 여러 가지 문제에 관해 의논을 잘한다.	①	②	③	④	⑤
18	어머니는 나로 인해 화가 나시면 창피를 주신다.	①	②	③	④	⑤
19	나의 느낌을 어머니에게 솔직하게 잘 털어놓는다.	①	②	③	④	⑤
20	무슨 일에 대한 내 진심을 어머니께 그대로 말씀드릴 수 없다.	①	②	③	④	⑤

※ 다음은 여러분의 진로선택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문항을 잘 읽고 자신의
 입장이나 생각과 가장 가깝다고 생각되는 번호에 ○표를 해 주십시오.

문 항	1. 전혀 그렇지 않다 2. 별로 그렇지 않다 3. 보통이다 4. 조금 그런 편이다 5. 아주 그렇다				
1. 내가 관심 있는 직업들에 대한 정보를 도서관이나 인터넷에서 찾을 수 있다.	①	②	③	④	⑤
2. 여러 가지 전공들이 나열되어 있는 목록 중에서 내가 원하는 전공을 선택할 수 있다.	①	②	③	④	⑤
3. 앞으로 5년간의 진로계획을 세울 수 있다.	①	②	③	④	⑤
4. 만약 내가 선택한 전공을 공부하는 데 어려움이 있을 경우, 어떤 방법들을 취할 것인지 결정할 수 있다.	①	②	③	④	⑤
5. 나의 능력을 정확히 평가할 수 있다.	①	②	③	④	⑤
6. 마음에 두고 있는 직업 목록들 중에서 한 가지 직업을 선택할 수 있다.	①	②	③	④	⑤
7. 선택한 전공을 이수하는 데 어떤 교육과정이 요구되는지 알 수 있다.	①	②	③	④	⑤
8. 힘든 상황에서도 내가 선택한 전공이나 진로 목표를 이루기 위한 일들을 지속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	①	②	③	④	⑤
9. 나에게 이상적인 직업이 무엇인지 알 수 있다.	①	②	③	④	⑤
10. 향후 10년간의 직업고용경향을 알 수 있다.	①	②	③	④	⑤
11. 내가 선호하는 생활방식에 맞는 진로를 결정할 수 있다.	①	②	③	④	⑤
12. 나는 나의 이력서를 멋지게 쓸 수 있다.	①	②	③	④	⑤

문 항	1. 전혀 그렇지 않다 2. 별로 그렇지 않다 3. 보통이다 4. 조금 그런 편이다 5. 아주 그렇다				
13. 처음 선택이 만족스럽지 않다면 전공을 바꿀 수 있다.	①	②	③	④	⑤
14. 나는 직업선택과 관련된 여러 가지 가치들에 대해 우선순위를 정할 수 있다.	①	②	③	④	⑤
15. 희망하는 직업의 평균 수입과 연봉을 알아 볼 수 있다.	①	②	③	④	⑤
16. 진로결정을 하고나면, 그것이 잘한 것인지 못한 것인지에 대해 걱정하지 않는다.	①	②	③	④	⑤
17. 선택한 진로가 만족스럽지 않으면 바꿀 수 있다.	①	②	③	④	⑤
18. 진로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내가 어떤 희생을 감수할 수 있고, 어떤 것은 감수하기가 어려운 지 구분해 낼 수 있다.	①	②	③	④	⑤
19. 내가 관심을 가지고 있는 분야에서 현재 일하고 있는 사람들을 만나 이야기할 기회를 가질 수 있다.	①	②	③	④	⑤
20. 나는 관심 있는 전공이나 진로를 선택할 수 있다.	①	②	③	④	⑤
21. 나의 적성이나 능력에 맞는 직종과 관련된 기관이나 기업에 대해 알아볼 수 있다.	①	②	③	④	⑤
22. 내가 원하는 생활방식이 무엇인지 알 수 있다.	①	②	③	④	⑤
23. 고등학교 진로에 대한 정보를 찾을 수 있다.	①	②	③	④	⑤
24. 취업 면접에 필요한 절차들을 실행할 수 있다.	①	②	③	④	⑤
25. 처음 선택한 진로나 분야가 불가능하다면 다른 전공이나 진로의 대안들을 생각해볼 수 있다.	①	②	③	④	⑤